古代 日韓關係의 成立

－地域 間의 交流에서 古代國家의 關係로－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서론
제1장 고고학의 성과를 통해 본 '반도·해협·열도'의 지역 간 교류
1. 彌生시대와 민무늬토기시대의 年代論
2. 토기의 교류
3. 금속기의 교류
4. 주거의 교류
제2장 문헌·문자 사료를 통해 본 고대 일한의 지역 간 교류
제1절 BC 1세기~AD 1세기 일한의 지역 간 교류
1. 중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의 지역 간 교류
2. 한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의 지역 간 교류
제2절 AD 2~3세기의 일한관계
1. 중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관계
2. 한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관계

【國文抄錄】

필자는 이제까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4세기부터 9세기까지의 범위에서 일한관계사를 연구해 왔다. 그 관계사는 고구려, 백제와 왜국, 신라와 일본의 외교 교섭에 관점을 둔 관계사였다. 거기에서는 왕권의 발동에 따른 양자의 외교 전개와 그 근저에 있는 자기인식의 상대화를 문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한관계사의 대상시대를 크게 거슬러 올라갔다. 그것은 율령법의 체계를 갖춘 고대국가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의 한반도와 일본열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의 교류와 관계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었다. 고대의 일한관계사라고 하면, 자칫하면 근대의 국가 간의 관계의 고대사판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두 지역의 관계는 '다지역 간의 교류' 또는 '다지역 간의 교섭'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보고의 기조에는 반도와 열도 지역 간이 지리적으로 아주 근거리라는 실감과 확인이 있다. 두 지역의 사이에 놓인 해협에는 섬들이 이어져 있다. 해협에 떠 있는 이 섬들이 이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승선하여 이 해협을 건너거나 항공기 내에서 해협을 내려다볼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실감한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열도의 주로 서부지역의 彌生時代와 이에 병행하는 반도 중남부 지역의 민무늬토기시대의 토기와 금속기(화폐, 청동기, 銅鏡, 철기)와 주거를 중심으로 두 지역 간의 사람들의 왕래와 정착 실태를 일한의 대표적인 유적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유물과 유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두 지역 간의 교류를 담당한 사람들의 왕래의 가능성과 그 배경을 중국과 한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 비판을 참고로 하면서 소개하였다.

거기에서는 BC 1세기부터 AD 3세기까지를 두 개의 절로 나누었다. 이 분절은 어디까지나 편의적인 것이다. 단, 두 지역 간의 교류와 관계는 길었던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면서도 보다 왕성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정치 과제가 점차로 포함되어 가는 것의 근저에는 BC108년에 반도의 북부지역에 漢帝國이 4郡을 배치하고, 이 중의 樂浪郡은 3세기 초에는 그 남부를 분할하여 설치되었던 帶方郡과 함께 4세기 초(313년과 帶方郡은 314년)까지 존속한 것이 깔려 있다.

이 두 郡이 400여년 간(帶方郡에서는 약 100년 간) 존속하고, 중국왕조의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두 지역에서 끼쳤으며, 또 두 지역이 주체적으로 그것을 바랐던 점은 반도와 열도 두 지역 간의 교류와 고대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관계사를 이해할 때에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2장이 다루는 시대에서는 일한의 두 지역 간의 교류와 관계를 연결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존재가 중국왕조이고, 또 그 두 郡이라는 것은 경시할 수 없다. 두 지역의 여러 지역의 세력이 이와 관계를 맺는 것이 또 일한의 여러 지역 세력의 교류와 관계를 심화시킨 측면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제어 : 無文土器(민무늬토기), 彌生土器(야요이토기), 海村, 三國志, 三國史記

서 론

일본과 한국의 역사공동연구에서 기대되는 성과란 무엇인가? 역사연구자는 역사를 다양한 史觀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이것을 공표하는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역사인식으로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史實을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史實을 해석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연구자의 사명이며 또 기쁨이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하고 있다.

역사를 생각하는 관점은 사회적인 여러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知의 營爲로서 생성하는 것이지만, 역사를 생각하는 가치관의 형성은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국가와 사회의 역사가 이것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연구자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잊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역사연구자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을 뛰어 넘어 진행하는 국제적인 역사공동연구, 게다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호간의 관계사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史實의 발굴과 검증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에 입각한 상호의 관점을 대조해 보면서 상호간의 관계사를 대한다면 공동연구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관계사에서 생성된 역사인식이 투영되어서는 여기에서 담당하는 고대의 관계사 이해에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도 이미 밝혀져 있다.

따라서 일한의 역사 그 중에서도 관계사는 일한 양국 간의 관계만으로 진행된 관계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각각의 내적 외적인 여러 조건의 대응관계 속에서 관계사는 진행되고 다음 세대에까지 그 영향을 짙게 남긴 역사이다. 이러한 사실을 등한시 하고 一國主体의 史觀에 빠져서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연구의 성과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일한관계사 연구는 세계사적 조건과 일한 각각의 내적인 조건과의 상호성이라는 다각적인 검토 속에서 비로소 그 역사를 풍부하게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담당하는 '고대의 일한'이라는 時空間에서의 관계사에 대한 검토는 국민국가의 틀에 입각하여 視點을 정하는 것이 꼭 적절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한'이라는 오늘날의 국가명을 늘어놓는 것 이외에는 적절한 時空間을 나타내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일한'이란 단어를 편의상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이 지역의 역사를 보는 시각의 현대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을 것이다. '일본열도와 한반도 지역'이라는 정의도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반드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열도

와 반도'의 '諸 지역'이란 시각에 입각하여 이 時空間에서의 교류와 관계의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 시도되어도 좋고, 내가 담당하는 4세기까지의 시대는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일한관계사'란 일본국과 한국이라는 상호에 국민국가의 타인의 시점에 입각하여 구성되는 역사이지만, 통일적인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이 '열도와 반도'라는 넓은 지역에서는 이 '일한'의 관계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일본국'과 '한국'이라는 식으로 양자로 구분하여 이 광역의 관계사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넌센스이다. 열도와 반도에는 많은 '지역'과 그 역사가 있으며 '일본국'과 '한국'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그것은 씨족공동체를 단위로 하고 또 자연적 조건에 많이 규정된 복수의 지역이 구성하는 사회이다.

게다가 이 사회는 반드시 특정 지역에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긴 시간의 범위에서 이것을 보면 이동이 활발하다. 단 이 이동은 반도에서 열도로의 벡터는 강하면서도 그 전단계에는 반도의 북부 나아가서는 아시아대륙 동부로부터의 파상적인 이동이 반도 제지역의 이동을 야기하고 또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의 연쇄는 축적된 각 단계의 문화를 자극하고 문화의 완만한 발달을 촉진시킬 것이다. 문화는 고정적이라기보다는 교류를 통해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며 이는 이러한 광역의 인간문화에서도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유구한 고대의 역사 속에서도 인접한 근대국가의 각각의 역사에서 그 관계사를 보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역사의 둔화'에 빠질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우열과 先後와 강약을 겨루는 것과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 함정은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

열도에서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彌生시대부터 기원후인 고분시대까지, 반도에서는 민무늬토기시대부터 삼한·삼국시대라는 시대 범위에서는, 양 지역에서 씨족의 이동·정착에 의한 씨족의 집합부터, 수십에서 백 가까운 초기국가(≪漢書≫ 등에 보이는 '國'의 기록)로의 전개를 볼 수 있다. 이 초기국가가 나아가 연합 혹은 분쟁 후에 통합을 거쳐 '대왕'을 받들고 그 후 중국왕조와의 通交가 축적되면서 율령을 체제화시킨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이 과정의 역사를 국민국가의 시각에 입각하여 '일한의 관계사'로서 이해하는 것에는 주저와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일한관계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역 간' 교류의 역사이다. 일한 고대국가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 이 '지역 간 교류'를 비추어 보아, 그 의의를 '고대국가의 형성사'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야말로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패트릭・J・기어리 著, ≪The Myth of Nations; The Medieval Origins Europe≫의 일본어 번역 ≪Nation이라는 신화－유럽 諸국가들의 중세적 기원－≫ (鈴木道也・小川知幸・長谷川伸之 譯, 白水社, 2008년 6월) 속에서 다수의 예를 들어 설명하듯이 고대의 언어와 문화는 매우 유동적이며 거기에는 불변의 영역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도 균일하지 않고 또 국민국가에는 고유의 선조와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내가 담당하는 '고대 일한관계의 성립'이란 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기어리는 시사하고 있다. '지역 간 교류에서 고대국가의 관계로'라고 부제를 붙인 것은 위에 서술한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

한편 西洋史家인 고 阿部謹也씨는 ≪북의 거리에서－어느 역사가의 원점－(北の街にて－ある歷史家の原点－)≫ (洋泉社, 2006년 8월 초판, 초판은 1995년에 講談社 간행) 속에서 "아카데미즘 속에 있는 연구자에게는 어떤 자세가 있고 그 자세의 배후에는 국가가 확실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는 개인이긴 하지만, 그 개인이 아카데미즘의 과제 속에서는 국가와 융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술회를 섞어 역사연구자의 어떤 자세를 지적하고 있다. 국제적인 공동연구 특히 인접한 상호간의 관계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각했으면 하는 阿部씨의 지적이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제1부에서는 고대 율령국가 성립 이전의 반도지역과 열도지역, 나아가 아시아대륙 동부에 걸친 광역의 '역사'를, '신화와 전승'으로 승화시킨 '왕권의 神 이야기'와 '창작된 역사' 혹은 '역사의 발명'이라는 현대가 창작한 고대사로부터 분리하여, 이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헌비판에서 획득한 지역 간 '교류'를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정리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제1장 고고학의 성과를 통해 본 '반도·해협·열도'의 지역 간 교류

【기본적인 관점】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걸친 넓은 '지역 간'에서 2~1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태고의 시대에는 '日' '韓'이라는 타자로 양분하는 조건에서의 상호인식은 아직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日' '韓'의 교류사라는 것은 과연 현대적으로 고찰하는 사고의 틀 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교류라는 것은 적어도 양자 혹은 그 이상의 귀속의식으로 맺어진 집단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정치, 경제, 문화에서 나타나는 모든 활동과 그 성과에 따른 이해이다. 여기에서 고대의 '일' '한' 관계를 오늘날의 역사학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고찰하는 視野 속에서, 그 대상은 확실한 시대로는 빨라도 4세기 전반부터의 大和 정권 성립 이후의 諸 호족연합으로 운영되는 고대국가 1단계의 시대이며, 광역의 토지와 호족이 지도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위에 성립된 어느 정도의 통일적인 통치체제를 준비한, 현대적으로 보면 초기국가 이후이다.

위에서 서술한 시각에서 조금 더 '日' '韓' 관계사의 대상을 거슬러 올라가도, 일본열도에서는 邪馬台國을 비롯한 다수의 소국이 여러 가지 이익대립 속에서 존패를 걸고 치열하게 연합과 함께 통합을 향해가던 시대, 또 한반도에서는 邪馬台國과 마찬가지로 ≪三國志≫ 東夷傳에 기록된 3세기 중반 이후의 삼한시대 여러 소국가들 이후부터일 것이라고 여기서는 이해한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북부지역에는 중국 전국시대의 동북부에 있던 燕國과 인접한 '朝鮮' 세력이 있었고(한국사에서는 '고조선'이라고 시대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정점이었던 箕子와 衛滿의 출신이 이야기되지만, 넓은 '고조선'의 사회와 정치 구조가 해명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고고학의 견지에서는 통일적인 '고조선'의 국가구조는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의 사회, 문화 구조이다), 결국에는 BC 108년에 前漢 武帝의 원정으로 이 '고조선'의 지배체제(이 시기에는 부족장을 매개로 한 느슨하고 혹은 강권적인 지배구조의 면이 강함)가 붕괴되고 그 故地

에 樂浪郡, 眞蕃郡, 臨屯郡, 그리고 다음 해인 BC 107년에는 玄菟郡이라는 총 4개의 郡과 그 管下에 10여개의 縣이 설치되는데, 이 4郡을 통하여 前漢부터 西晋까지 중국의 중앙집권적인 통치 하에서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받게 된다.

'고조선'과 4郡에 인접하여, 반도의 북부에서는 고구려족의 통합이 국가의 지배체제를 갖추고, 남부지역에서는 크게 마한, 진한, 변한으로 분류되는 삼한 속에서 여러 소국들이 지정학적 조건으로부터 郡縣의 정치규제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통합을 향한 긴장관계 속에 있던 시대에 고대 '日' '韓'관계와 관련한 역사학적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필자는 그 시대에 선행하는 유구한 시대에 반도와 열도지역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의 왕래에 대해 그 회수의 많고 적음은 계측 불가능하지만, 또 해류의 제약을 극복하는 항해술의 발달에 규제되면서도 쌍방향 왕래가 시도되고 또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두 지역의 유적과 유물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왕래는 이쪽에서 보면 '도래'이고 저쪽에서 보면 '渡航'이지만 이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일' '한' 이라는 식으로 양자를 구별하여 관계의 역사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이며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 '한' 고대국가의 교류관계가 탄생하는 요람기이며 지역 간의 교류인 것이며 아시아대륙이라는 관점에서 조감한다면 '일' '한'의 지역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지역 내의 교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의 시각에 입각하여 일본 역사학의 시대구분인 彌生시대, 한국에서는 민무늬토기시대부터의 '일' '한' 두 지역의 교류를 유적과 유물에 초점을 맞춘 고고학의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이 시대에 선행하는 구석기시대의 문화는 반도지역에서는 동북부의 咸鏡北道 雄基郡의 屈浦里유적부터 서남부의 忠淸南道 公州市의 石壯里유적 등까지 100곳이 넘는 유적이 알려져 있고, 열도지역에서는 群馬縣의 岩宿유적 발굴 이래 각지의 유적에서 구석기시대는 확인되고 있다. 지질학에서는 신생대 제4기 更新世에 해당하며 그 하한은 1만여년 이전이라는데 이 시대에는 반도와 열도 사이에는 육지가 연결되어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해협이 극히 좁았거나 하여 '교류'라는 고정된 지역 간 인적 왕래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동'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태일 것이다.

이어지는 신석기시대는 토기를 지표로 하여 반도지역에서는 빗살무늬토기시대, 열도지역에서는 縄文시대에 해당한다. 그 상한은 뷔름 빙기(Wurm Glacial Period)가 끝나는 12000년 전경, 하한은 BC1000년경 사이로 구분된다. 반도지역에서는 서북의 黃海北道 鳳山郡의 智塔里유적부터 동남의 慶尙南道 釜山廣域市 影島區의 東三洞유적 등 다수의

유적이 알려져 있고 또 열도지역에서는 千葉市의 加曾利패총 등 각지에 이 시대의 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 유구한 시대에는 반도지역에서 제작된 결합식낚싯바늘(結合式釣針)이 福岡 平野지역에서 출토되고 있고 한편 열도 서부지역의 佐賀縣 有田町의 腰岳에서 채취한 흑요석이 반도지역으로 건너간 것이 알려져 있다. 또 반도지역의 구멍무늬토기(토기 속 혹은 바깥부터 아가리에 구멍을 뚫어서 돌아가며 배치한 토기)가 열도 서부지역으로 건너간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상호 간에 문화의 왕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片岡宏二 2006】.

여기까지의 시대와 그 문화는 위에서 서술했듯이 현대적인 문제의식의 관점에서 '日' '韓'이라는 이편 저편 양쪽으로 나눈 관계사적 연구시각에 입각하여 고찰한다면 그 문화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아 원초적으로도 공통의 문화를 갖고 있고 위에서 서술한 고대국가의 탄생을 준비하는 광역의 기층사회와 그 원초의 문화가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시대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필자는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영토라는 시각에서, 또 근대 이후의 '일본과 한국'과의 여러 관계 그 중에서도 '일한병합'의 역사에서 발생한 정치, 문화의 交涉史라는 시점을 무의식중에 이 유구의 시대에까지 소급시켜 이 원대한 시대를 이해한다면 그 고찰의 결과는 상당히 난폭한 歷史像이 될 것이다. 고고학의 분야에서 태어난 이 시대의 문화를 무의식 속에서 현대적인 국민과 국경의 의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실상과는 괴리된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상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1. 彌生시대와 민무늬토기시대의 年代論

따라서 문헌을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역사학의 성과와 지하에 묻혀있는 인간의 사회생활의 단계적 발달의 증거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개별적 종합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는 고고학의 성과와의 응용적 고찰이 가능한 시대, 즉 반도지역에서는 민무늬토기시대, 열도지역에서는 彌生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약 10세기경부터의 양 '지역' 간의 인적 교류에 대해, 매장문화재와 문헌고찰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위에서 '기원전 10세기경'이라고 썼는데 별표【<표 Ⅰ>을 참조】에서 보듯이 열도지역의 시대구분인 彌生시대의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국립역사민속

박물관·歷博學術創成研究그룹이 실시한 탄소14년대 측정법을 통한 성과에 입각하여, 종래의 彌生시대 개시와 관련한 年代觀에서 약 5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이 '기원전 10세기경'이라고 결론지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07】.

이 별표를 작성한 藤尾愼一郎씨와 함께 연구그룹을 운영했던 春成秀爾씨는 "彌生 早期의 시작이 기원전 10세기 후반, 전기가 기원전 9~8세기, 중기가 기원전 4세기에 시작된다고 하는 탄소14년대는 고고학적으로 점검해 보아도 성립된다"고 설명한다【春成 2006, 86p】.

春成씨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北部九州의 縄文말기 黑川〔濱田註：鹿兒島縣 日置郡 吹上町 永吉砂走 黑川〕式의 古段階는 기원전 1300~1000년경, 黑川式의 新段階는 기원전 1000~950년경, 彌生 早期의 山寺〔同註：長崎縣 南島原市 深江町〕式·夜臼〔同註：福岡縣 糟屋郡 新宮町ゆうす (유스)〕 Ⅰ式은 기원전 950년경, 夜臼Ⅱa식은 기원전 840년, 彌生 전기의 板付〔同註：福岡市 博多區〕 Ⅰ式은 기원전 780년이 각각의 상한이다"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여 반도지역의 대체적인 탄소연대는 "민무늬토기 早期인 渼沙里〔濱田註：京畿道 河南市〕式은 기원전 13~12세기, 前期인 可樂洞〔同註：서울특별시 松坡區〕式은 기원전 12~11세기, 欣岩里〔同註：京畿道 驪州郡 占東面〕式은 기원전 11~10세기, 中期인 休岩里〔同註：忠淸南道 瑞山市 海美面〕式은 기원전 10~9세기, 松菊里〔同註：忠淸南道 扶餘郡 草村面〕式은 기원전 8~7세기이다"라고 설명하고, "탄소연대라도 黑川式－可樂洞式·欣岩里式, 山寺式·夜臼Ⅰ式－休岩里式, 板付Ⅰ式－松菊里式은 거의 병행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양 지역 간의 토기문화의 병행관계를 설명하고 있다【春成 2007, 21p】.

이 새로운 彌生연대에 대한 年代觀은 현재 왕성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이다. 그 측정재료가 독(甕)에 부착되어 있는 탄화물이라는 점에 대해, 인골과 사슴뼈에 의한 측정결과를 가지고 이 가설을 비판·검증하는 성과도 제출되어 있고【田中良之·溝口孝司·岩永省三·Tom Hjghman2004. 岩永2005, 2005~2009】, 최근에는 고고학의 연구자세에 대한 물음과 함께 관계 학계에서는 왕성하게 재검증과 가설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사회의 관심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문헌과 이것을 해석하는 역사학의 성과와 매장문화재의 역사학적 연구와의 대조가 가능한 시대, 즉 반도에서는 ≪한국고고학사전≫ 【한국문화재연구소, 2001년 12월】에 따르자면 민무늬토기시대(청동기시대), 열도지역에서는 이 시대에 상당하는 縄文시대 말기부터 彌生시대의 開始期에 상당하는 약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이 두 '지역' 간

의 교류를 문화유산과 문헌비판을 통해 얻은 고찰의 성과로 정리해보자.

학문과 지식의 구축이라는 의욕에서 보면 매우 자극적인 이 시대 반도지역과 열도지역의 문화교류에 대한 확인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금속기뿐만 아니라 유적 그 자체의 주거지, 분묘의 형태 등 고고자료가 어떻게 병행하는가 하는 관계의 구성에 파급된다. 그것은 두 지역 간을 왕래하고 또 이주해서 결국에는 혼합·융합된 사람들이 고대국가의 단계적 발전마다 일한관계의 前史를 구성한 역사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토기의 교류

【열도지역에서 출토되는 민무늬토기】

반도지역에서의 청동기 사용은 그 후의 철기사용과도 중첩되지만 이 시대의 지표가 되는 토기문화의 형태는 민무늬토기라는 점에서 오늘날에는 넓게 민무늬토기시대라고도 명명하고 있다. 그때까지의 빗살무늬로 대표되는 토기의 기하학적인 문양은 거의 소멸되고 납작바닥과 민무늬를 특징으로 한다. 거칠게 제작된 항아리(壺), 독(甕), 바리(鉢) 등의 토기, 붉은간토기(丹塗硏磨土器), 후에는 검은간토기(黑色硏磨土器)를 특색으로 한다.

武末純一씨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武末純一 2002】, 남북 약 1,150㎞(도서부 포함), 동서 약 360㎞인 반도의 민무늬토기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조기(새김덧띠무늬토기(刻目突帶文土器)를 주축으로 하는 渼沙里式토기), 전기(아가리에 점토띠를 두르고 그 아래에 빗금무늬를 넣은 可樂洞式이 이 시기의 先行型), 구멍무늬를 새긴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인 欣岩里式으로 구분된다), 중기(休岩里式, 松菊里式), 후기(水石里〔京畿道 渼金市〕式, 勒島〔慶尙道 泗川市〕式)로 시기가 구분되는 가운데(<표 1>참조), 武末씨는 九州북부지역과 교류하는 한반도 남부의 토기에 대해서는 독(甕)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는 欣岩里式(아가리 바로 밑에 작은 구멍을 두른 구멍무늬독(孔列文甕)), 중기의 松菊里式(밖으로 바라진 아가리를 가진 독), 후기 전반은 水石里式(아가리의 단면이 원형이면서 점토띠를 붙인 겹아가리토기(粘土紐貼付二重口緣土器)), 후기의 후반은 勒島式(아가리의 단면이 삼각형인 점토띠를 두른 점토띠토기)으로 크게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武末씨는 열도 서부지역과의 병행관계를 고찰하여 민무늬토기 조기는 黑川式

(鹿兒島縣 日置郡 吹上町 永吉砂走黑川 동굴에서 출토된 토기)보다도 빠르고, "전기는 黑川式~刻目突帶文期(繩文말기~彌生조기), 중기가 刻目突帶文期~板付(福岡市 博多區) Ⅰ式期(彌生조기~전기 초), 후기는 板付Ⅱ式期~須玖(福岡縣 春日市) Ⅰ式期(彌生전기 중반경~중기 전반)에 거의 상당한다"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반도와 열도 두 지역의 문화의 시대축이 대응하는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武末純一 2002, 113~114p】(<표 2> 참조).

민무늬토기시대의 열도 서부지역과 반도 남부지역과의 교류를 토기의 면에서 해석하는 데에는 片岡宏二씨가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것【片岡 1999】이 유익하다. 片岡씨는 주고쿠(中國)지방의 島根縣, 廣島縣부터 鹿兒島縣까지의 열도 서부지역에서, '구멍무늬토기'(전기 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島根縣 松江市의 다테초(タテチョウ)유적부터 鹿兒島縣 曾於郡 志布志町의 飛渡유적까지 모두 74개소에서 발견하고 정리하고 있다【片岡 1999, 57~63p】.

그 중에서 '彌生시대 전기 말에는 조선계 민무늬토기의 대량출토'를 야기한 현상을 인정하고, 도래인이 열도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그 배경이며, 그 계기가 된 것은 "衛滿朝鮮이 箕子朝鮮을 멸망시켜서 그 일족이 전란중인 땅을 떠나 남하한 것이며 남하한 곳에서도 이주가 더욱 촉진되어 그 여파가 일본에까지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片岡 1999, 51~52p】. 衛滿朝鮮의 개시는 BC 194년이라고 하지만 위에서 서술했듯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彌生시대의 개시연대가 500여년이나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箕子朝鮮과 衛滿朝鮮의 교체시기는 BC 2세기 초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열도 서부지역에서의 '조선계 민무늬토기 대량출토'의 원인설은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반도 남부지역의 문화요소가 열도 서부지역으로 전파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겠지만, 반도와 열도 두 지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고고학적 편년과 실제 연대와의 대응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片岡씨는 일본에서 출토되는 松菊里型토기(아가리가 완만하게 밖으로 바라진 납작바닥 토기)와 유사한 토기와 그 계통의 토기가 출토되는 岐阜縣 可兒市의 北裏유적부터 四國지역에서 福岡縣 小郡市의 津古土取유적까지의 19개 유적에 대하여 "한반도의 중기 민무늬토기인 松菊里형토기가 그대로 일본으로 전해진 것 또는 도래인이 일본 국내에서 제작한 것, 나아가 松菊里형토기의 제작기술·器形을 모방한 것 등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분류하고 있고(75p), 사람들의 이동, 정착과 그 땅에서의 기술교류를 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武末純一씨는 민무늬토기시대 후기 전반인 水石里식토기가 열도의 九州, 中國, 四國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佐賀縣 小城市 三日月町의 土生유적에서는 항아리, 독, 굽다리접시(高坏)가 彌生토기와도 융합된 사례를 지적하고 있고【武末 1991, 14p】, 片岡씨는 後藤直씨가 먼저 진행한 연구를 계승하여 '후기 전반'의 조선계 민무늬토기를 마가리타(曲がり田)유적(福岡縣 糸島郡 二丈町)과 福岡市 博多區의 諸岡유적, 板付유적, 또 福岡縣 小郡市의 横隈山유적, 佐賀縣 小城市 三日月町의 土生유적 외에도, 熊本 이북에서는 山口縣까지의 23개 유적에서 확인하고, 또 長崎縣 壹岐市의 하루노쓰지(原の辻) 유적 외에, 福岡, 山口縣에서도 9개의 유적을 확인하고 있다【片岡宏二 1999, 95p】. 이 문화를 뒷받침하는 사람의 주거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하고자 한다.

또 武末씨는 민무늬토기시대 후반인 勒島유적에서는 "열도의 彌生중기 초반~전반인 조노코시(城ノ越)(福岡縣 中間市 城ノ越 패총)式토기와 須玖(福岡縣 春日市 須玖) Ⅰ式토기, 또는 그 모습이 비슷한 토기가 상당히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彌生토기가 勒島로 반입되어 "彌生토기와 민무늬토기가 혼연일체가 된 것 같은 토기가"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武末 1991, 14p】.

여기에서 토기 교류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교류의 實相을 고찰하게 된다. 後藤直씨는 "유적의 외부로부터 민무늬토기인에 의해 또는 彌生인의 손을 거쳐 반입되었다고 봐야 한다"【後藤直 2006】, 그리고 "諸岡유적의 민무늬토기는 彌生사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해, 土生유적에서는 彌生취락의 한가운데서 많은 민무늬토기와 擬민무늬토기가 나오고 있다"【後藤, 91p】라는 점에서 "민무늬토기 담당자들은 彌生사회 속에 들어가 거기에 생활터전을 잡고 彌生토기에 가까운 변형된 擬민무늬토기를 만들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북부九州에서 출토되는 조선계 민무늬토기는 한반도남부의 민무늬토기사회와 彌生사회의 교섭을 담당하며 왕래했던 사람들이 남긴 것이며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는 彌生토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지만(92p), 그들이 왕래했던 事情과 목적, 그리고 그들이 彌生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事情은 불분명하다고 한다【後藤, 92p】.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한 규명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片岡宏二씨의 연구【片岡 1999】이다. '도래인 집단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 최초로 발굴된 것은 1974년에 조사된 諸岡유적(福岡市 博多區)이고, 水石里식 민무늬토기 독과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인정된다. 片岡씨는 諸岡유적과 土生유적에서 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상황의 차이를 파악하여 두 지구에 대한 도래인의 주거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유적에서 출토되는 민무늬토기의 비율을 보면 彌生토기가 다수이기 때문에 도래인 취락만으로 완결되는 넓은 취락이 아니라, '도래인 취락'이란 "도래인이 주거하는 취락이라는 이해에 머무르고", "전통적인 한반도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고"있었고, "彌生사회 속에서는 특수한 존재였다"라고 한정하고 있다.

片岡씨의 분석·정리에 따르자면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이것이 '彌生토기의 영향을 받아 모습을 달리하는 擬조선계 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에 대해서, 현해탄 연안부에 산재한 유적에서는 擬조선계 민무늬토기는 출토되지 않고 또 조선계 민무늬토기도 몇 개정도인 반면, 북부九州 내륙부에 집중된 유적에서는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擬조선계민무늬토기가 항아리, 굽다리접시(高坏)등 각 器種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교역과 우연히 흘러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것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도래하여 彌生사회 속에서 정착해 살게 된 도래인 집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후자의 예는 <표 3>이지만, 후자에서 대표적인 諸岡유적 타입은 "도래인 집단은 기존의 彌生취락의 일각으로 이주하고 게다가 한정된 시간 내에 생활한 후에 다시 어디론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土生유적 타입은 諸岡유적 타입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彌生취락이 존재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형태로 도래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래인의 거주기간은 장시간이었고 타지로 이동하는 일 없이 彌生인에게 동화되는 마지막까지 그 땅에 정착했다"라고 구분하고 있다【片岡 1999, 103~113p】.

【반도지역에서 출토되는 彌生토기】

반도 남부지역과 열도 서부지역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유물로는 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彌生토기가 있다. 시기가 빠른 사례로는 1934년 金海(金海市 會峴里)패총에서 출토된 독널(甕棺)이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1980년에 慶尙南道 泗川市 勒島유적에서 甕棺 등의 彌生토기가 발굴되었기 때문에【申 1980】, 彌生전기부터 중기에 상당하는, 민무늬토기시대 후기에 상당하는 시대에 이 해역의 상호교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慶尙南道 남부지역의 12개 유적에서 출토된 彌生토기에 대하여 片岡宏二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金海市 池內洞유적에서는 九州 서북부의 彌生토기와 비슷한 토기가 출토, ② 釜山市 溫泉洞유적에서는 '熊本縣을 중심으로 하는 九州중부지방의 특징적인 토기'가 채집되고 있어서, "반도 남부사회가 九州 중부 지역까지 교섭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③ 固城 東外洞유적은 '북부 九州와의 관계'가 주목된다【片岡 1999】.

1985년 이래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④ 勒島유적에서는 주거지 11개 사례, 움집유적 3가지 사례가 검출되었다【申 1980】. 또 片岡씨가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하여 安在晧·徐姈男씨【부산대학교 박물관 1989】는 勒島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彌生시대 전기초반 조노코시(城ノ越)式期'와 '彌生시대 중기 초반, 조노코시(城ノ越)式토기의 늦은 단계'와 '須玖Ⅰ式토기단계'의 3단계에 彌生토기와 병행하고 있다고 이해했다고 한다【片岡 1999, 132p】.

⑤ 釜山市 福泉洞 萊城유적에서는 다수의 彌生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를 조사한 河仁秀씨【河 1990】는 출토된 토기가 북부 九州의 彌生토기와 형식과 표면처리 방법 등에서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고 민무늬토기인이 彌生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민무늬토기가 출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東萊城유적의 彌生토기는 민무늬토기인들이 彌生토기의 영향을 받아 직접 제작했다기보다는 당시 東萊城유적에 거주하고 있던 彌生인들이 직접 제작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다 깊숙이 다루고 열도지역에서 넘어간 渡航人의 존재를 보고 있다.

申敬澈씨와 河仁秀씨는 東萊城유적에서는 '중기 초반 조노코시(城ノ越)式토기부터 중기 전반 須玖Ⅰ式에 걸친 토기'가 동시기에 출토된 토기 중에서 94%나 차지한다고 하는 특이성을 제시하면서, 勒島유적에서는 그 비율이 8%라는 점에서 "勒島유적의 彌生토기는 반입품으로 보이고 東萊城유적의 彌生토기는 교역 또는 대외교섭을 위해 거주했던 彌生인들이 제작한 것"이며, 전자에서는 열도지역과의 장기간에 걸친 교섭이 후자에서는 彌生인의 단기간 거주와 彌生토기제작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했던 열도 서부지역에서의 민무늬토기에서 보이는 도래인의 거주와 대조적인 인적 교류의 동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片岡씨는 勒島유적과 固城 東外洞패총에서는 "유적을 운영하는 주체자가 항해민적인 성격"이라고 상상하고 있고 장기적인 접촉이라는 점에서 "북부 九州와 접촉을 가진 항해민이며 어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지적한다【片岡 1999, 130~148】. 한편 東萊城유적, 金海패총, 池內洞유적에서는 나온 彌生토기는 생활도구와 매장을 위한 甕棺, 제사토기 등 다양한 종류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일한교섭의 기본적인 모습으로서 직접적인 도래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나아가 金海 池內洞유적에서 출토된 제사용 붉은간토기는 壹岐·對馬·糸島지방에 분포하는 것이며, 伊都國에 의한 현해탄을 왕래하는 해상교역이 지적되고 있다. ≪三國志≫ 魏書 倭人傳의 기록에 나오는 '倭人'이 사는 '그 北岸은 狗邪韓國'이라는 海峽圈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기 바로 전 단계이다.

【武末씨의 '海村'설】

武末純一씨는 "漁勞뿐만 아니라 해상교역활동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취락을 '海村'"이라고 정의했다. 반도 남부와 九州 서북부지역 간의 상호 인적이동, 즉 상호간에 바다를 건넜고 또 그 후에 정착한 사례도 있었겠지만 또는 해협을 건너 항해하면서 물자의 상호교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생활상의 個性을 抽出하고 있다【<茶戶里유적과 일본> 국립중앙박물관 ≪茶戶里유적 발굴성과와 과제≫ 2008년 11월, 293쪽】.

그러면서 武末씨는 반도 남부지역에서의 '海村'의 요소를 보여주는 昌原市 茶戶里유적 출토품에서, 반도지역의 원삼국시대에 대응하는 열도의 彌生중기 후반부터 彌生후기에 걸친 반도와 열도의 해협을 건너는 교류를 소개한다.

武末씨에 따르자면 해상교역 활동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海村의 전형적인 예로는 九州 서북부 지역에서는 福岡縣 志摩町의 御床松原유적이 있다. 또 對馬와 壹岐市의 하루노쓰지(原の辻)유적과 同市의 가라카미유적이 있으며, 반도 남부지역에서는 泗川市 勒島유적이 있다. 하루노쓰지유적에서는 도래인 등이 왕래하는 선착장도 발견되고 있다.

御床松原유적과 勒島유적에서는 "아와비오코시 (역주:전복따는 도구)" 등의 어업용 도구가 많이 출토되고 있고, 농경사회임을 상징하는 농기구인 돌칼이 적다는 점에서 '海村'의 생활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두 지역 이내로 한정한다면 일찍이 故 岡崎敬씨가 九州 서북부의 海浜지역에서 발견한 '海人'의 취락이 있다.

이 '海村'의 '海人'이 반도 남부지역과 九州 서북부와 교류했던 생활상을 전하는 유물이 위에서 서술한 토기이며 아래에 소개하는 두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반입된 中國의 銅錢 등이다.

【漢代화폐의 출토】

"海村"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는 반도와 열도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이 지역 외의 문물인 中國 漢代의 유물이 있는데, 그 중 화폐는 연대 폭을 좁힐 수 있어

서 유적의 실제 연대의 종합적인 판정에 유효하다.

우선 반도지역에서는 李榮勳씨【李 1991】와 金京七씨가 정리한 바에 따르자면【金 2007】, BC2~1세기부터 기원 전후에는 昌原市 茶戶里유적에서는 五銖錢(前漢 武帝 元狩4년〔BC119〕, 직경 1寸〔2.6㎝〕, 무게는 5銖〔3.25g〕인 円形方孔錢)이 3점, 昌原市 城山패총에서는 同 1점, 勒島에서는 同1점과 半兩錢(秦의 半兩錢은 12銖〔8g〕, 漢代의 半兩錢은 高后〔BC186〕半兩은 무게가 8銖〔5.3g〕, 武帝〔BC120〕의 半兩錢은 2.7g, 半兩이라고 陽鑄한 円形方孔錢) 4점, 永川市 古鏡面의 龍田里에서는 五銖錢 3점이 출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도 참조).

한편 열도지역에서는 高倉洋彰씨【高倉 1991】와 岡部裕俊·比佐陽一郎·片多雅樹씨가 2004년8월 단계에서 정리【岡部外 2004】한 바에 의하면, 御床松原유적에서는 貨泉 3점, 半兩錢 1점이, 新町유적(福岡縣 糸島郡 志摩町)에서는 貨泉 1점, 半兩錢 1점, 근처인 前原市 上鑵子유적과 同市의 三坂七尾유적에서는 모두 貨泉이 1점, 그리고 壹岐市 하루노쓰지유적에서는 貨泉 10점, 對馬市 시게노단유적(豊玉町 佐保)에서는 貨泉 1점, 또 鳥取市 靑谷町의 靑谷上寺地유적에서는 貨泉 4점이 출토되었다. 또 御床松原유적에서 가까운 福岡市 西區의 元岡유적에서는 五銖錢이 1점, 貨泉이 8점 출토되었다【武末 2002, 297p】.

또 小田富士雄씨에 의해 江戶시대에 山口縣 宇部市 오키노야마(沖ノ山)에서 半兩錢 20점, 五銖錢 96점, 파편이 19개 출토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小田 1992】. 또 北九州 小倉南區 守垣유적에서는 五銖錢 1점이 출토되었다. 한국에서도 다량으로 銅錢이 출토된 예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반도지역에서의 漢代화폐 출토사례로는 기원후 1~3세기에는 全羅南道 海南 郡谷里패총(1세기 중반)에서 貨泉(新나라 王莽때의 円形方孔錢으로, '貨泉'이라는 2글자를 陽鑄. AD14년에 처음으로 주조, 1寸〔2.25㎝〕, 무게는 5銖〔3.19g〕, 後漢의 光武帝 때인 建武16년 〔AD40년〕에 前漢의 五銖錢이 부활되었지만, 貨泉은 私鑄되었다), 또 慶尙南道 麗水市의 巨文島에서는 五銖錢이 980점, 慶尙南道 金海市 會峴洞패총에서는 貨泉 1점, 慶尙北道 慶山市 林堂洞유적에서는 五銖錢 3점, 濟州島 山地港에서는 五銖錢 4점, 貨泉 11점, 大泉五十(新나라 王莽代의 円形方孔錢으로 大泉五十이라고 陽鑄되어 있음. AD7년부터 14년까지 주조됨)이 2점, 貨布(新나라 王莽이 AD14년에 처음으로 주조, 20년에 재주조, 方肩方足 형태로 상부에 원형의 구멍, 길이는 5.8㎝, 폭은 2.4㎝, 무게12g) 1점, 濟州島 北濟州郡 終達里패총(섬의 동북부)에서는 貨泉 1점, 濟州島 서북부의 錦城里 주거지유적에서는 貨泉 2점이 출토되었다.

3세기 말에 편찬된 ≪三國志≫ 卷30 <魏書> 韓傳은 濟州島의 풍습을 기록하면서 "乘船往來, 市買韓中"라고 했고, ≪後漢書≫ 卷85의 韓에도 "乘船往來, 貨市韓中"라고 나와 있어서 濟州島의 '海村'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반도 남부지역의 '韓'에 왕래하고 있었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志≫ 卷30 倭人傳에도 "對馬國 … 無良田, 食海物自活, 乘船南北市糴" "一大(支)國 … 差有田地, 耕田猶不足食, 亦南北市糴"라는 기록이 있어서 九州 서북부지역의 對馬國과 一支國의 주민들은 반도지역으로 건너가 곡물을 매입하여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었다. 여기에 故 岡崎敬씨가 표현했던 북부 九州해역 '海人'이 해상으로 왕래하던 생활상이 있고 이 '海人'의 생활상은 반도남부의 多島海에서도 표현되는 것이며 그 기반은 武末씨가 표현한 '海村'이다. 武末씨는 이것을 정리하여 "彌生시대 중기에는 한반도 남부의 海村과 서일본(특히 북부 九州) 海村 사이에는 상호 왕래하는 海村의 독자적인 세계가 구축되었다"고 보고 있다.

王莽이 치세하던 시기에 "民私以五銖錢市買"(民이 사적으로 五銖錢으로 시장에서 사고판다)(≪漢書≫ 卷24下·食貨下)라는 기록이 있어서, 前漢 武帝 元狩 5년(BC 118년)에 주조된 五銖錢이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 五銖錢 외에도 漢의 銅錢이 반도남부와 九州서부의 '海村'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이는 두 지역의 왕래와 경제교류를 제1차적으로 또 그 內地部로 이어지는 2차적인 교류를 설명하고 있다.

3. 금속기의 교류

청동기 제조는 서아시아에서는 일찍이 B.C 3000경에 시작되어 동아시아의 중국에서는 B.C 2000년대 초에는 제조가 시작된다고 한다【田中琢·佐原眞 ≪日本考古學事典≫ 三省堂, 2003년 2월】. 銅·주석·납을 첨가한 청동기가 무기와 祭器로서의 능력과 그 형태·장식·중량 등이 표현하는 장엄성에서 나오는 가치가 위신을 상징하는 이 청동기문화가 극동의 반도와 열도지역으로 전파된 '海域圈' 교류의 역사를 정리해 보자.

그런데 金貞培씨는 덴마크의 Christian Jurgensen Thomsen이 ≪北方古文物入門(Ledetraad til Nordisk Oldkyndiighed)≫ (코펜하겐, 1836년) 에서 설명하고 있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3구분법을 비판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의 특징으로 시기구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金 1979】, 이 3가지 도구가 사회경제를 진전시켜서 부족사회에

서 국가사회로 진전시켰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또 西谷正씨는 반도지역의 역사구분론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토기의 특색을 중시하여 '구석기시대 / 빗살무늬토기시대 / 민무늬토기시대 / 원삼국시대 / 삼국시대'라는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西谷 1982】.

따라서 청동기의 교류, 그 시초는 반도지역에서 열도지역으로의 전파이지만 결국은 열도지역에서 반도지역으로 건너가기도 한다.

【청동기·銅鏡의 왕래·교환】

岩永省三씨가 정리【岩永 1991】한 바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열도로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彌生시대 전기 말에서 중기 초반에 걸쳐서이고", 그 器種은 "세형동검·세형동모·세형동과·다뉴세문경·銅鉇"라고 한다. 그리고 열도지역에서는 반도지역의 청동기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세형동검·동모가 제조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제작한 것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도래한 鑄造工人이라는 점" "제작을 의뢰한 것이 彌生人사회였다고 해도 당초에는 주조장인의 제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彌生人의 취향을 강제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고찰하고 있다(117p).

그러나 中細形銅劍 등 열도 독자적인 청동기가 출현하는 배경에 대해서 岩永씨는 "彌生시대 전기 말~중기 초반에 걸쳐 민무늬토기 문화인집단이 일정 정도의 인원수로 도래한 것은 틀림없겠지만", "그들은 아마도 후속 도래자가 끊어졌거나 급감했기 때문에 주변의 彌生人집단과 급속하게 동화되어 갔는데" 그 기술을 계승한 彌生人들도 반도지역의 무기인 청동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여 "열도인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열도지역에서 반도지역으로 건너간 청동기 중에도 각종 利器와 青銅鏡이 있는데 小田富士雄씨와 武末純一씨가 정리한 통람【小田·武末1991】에 의하면 반도지역에서 출토된 열도지역에서 제작된 青銅利器는 일찍이 1917년에 鳥居龍藏에 의해 ①'(傳)慶尙南道 金海에서 발견된 中廣銅矛'가 알려져 있다. 그리고 釜山市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②'(傳)慶尙南道 金海市 明法洞에서 출토된 廣形銅矛', ③'慶尙南道 固城(東外洞)패총에서 출토된 廣形銅矛', ④'慶尙南道 金海郡 酒村面 良洞里에서 출토된 変形細形銅劍·異形中細形銅矛', ⑤'慶尙北道 大邱市 晩村洞에서 출토된 中廣形銅戈', ⑥'(傳)江

原道에서 발견된 中廣形銅戈'를 열거하고 있다. 단 小田富士雄·武末純一씨는 "청동무기에 있어서 中細形式을 북부 九州産이라고 결론짓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만, 中廣形·廣形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서 제작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북부 九州産이라고 결론지어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듯이 ④의 '変形細形銅劍'은 對馬市의 佐保 시게노단유적 이외에 對馬市 上縣町 白岳유적, 福岡縣 三潴町 塚崎유적, 佐賀縣 요시노가리(吉野ヶ里)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어서, "한국에서의 북부 九州産 靑銅利器의 분포는 경상남도 김해시 부근과 경상북도 대구시 부근으로 집약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 岩永씨【岩永 1991】는 이에 덧붙여 "慶尙北道 九政里 및 竹東里 출토 細形銅戈는 福岡縣 須玖岡本 13호 독널과 福岡縣 水城 출토 細形銅戈와 同型式"이라는 예를 소개한다.

【銅鏡의 교류】

銅鏡의 교류로는 前漢의 日光鏡을 모방한 小銅鏡(韓鏡)이 慶尙北道 永川郡 琴湖邑 魚隱洞유적과 大邱廣域市 西區 坪里洞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전자에서는 韓鏡 12面(渦文鏡 11面, 八乳放射線文鏡 1面)이, 후자에서는 韓鏡 5面(渦文鏡 4面, 放射線文鏡 1面)과 四乳虺龍文鏡 1面이 漢鏡과 함께 출토되었다【小田 1982】.

이 원삼국시대의 小銅鏡은 초기에는 테두리가 5㎝로 얇았다가 7㎝이상으로 변화하는데, 魚隱洞유적에서 나온 渦文鏡 4面과 같은 본을 사용해 만든 同笵鏡이 佐賀縣 三養基郡 上峰町 二塚山 46호 독널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彌生 "후기 초반에 북부 九州에 전해진 '韓鏡'은 이윽고 韓鏡을 모델로 하는 북부 九州에서의 彌生시대 小型仿製鏡(倭鏡) 제작을 개시하고 있지만"【高倉 1991】 한편 반도지역에서 출토되는 倭鏡은 ①부산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傳) 慶尙南道 咸安郡 伽倻邑 沙內里鏡', ②'濟州島 濟州市 健入洞鏡(山地港鏡)'과 ③한국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菊隱李養璿蒐集문화재자료의 4面(1面은〔傳〕慶尙南道 金海郡 酒村面 良洞里, 3面은 출토지 미상)까지 합하여 모두 6面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 중에서는 ③의 출토지가 미상인 3面은 북부 九州의 佐賀縣 礫石鏡과 同縣 白石鏡, 또 福岡縣 本庄鏡, 山鹿 1호土壙墓鏡, 同縣 가메노코(龜ノ甲)鏡, 鹿兒島 縣外川江鏡 등에도 面徑이 7~10㎝ 등 뒷면 문양의 각 요소의 구성이 같고, ①과 ③의 5面은 "銅質을 봐도 日本産 小型仿製鏡이라고 해도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토되고 있는 小型仿製鏡(倭鏡)은 모두 …(중략) …九州

의 彌生시대 후기 중반 경부터 후반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고 "한반도의 남해안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것 같다"【小田·武末 1991,159p】라고 한다.

上野祥史씨는 한반도 남부의 3세기에서 7세기에 걸친 유적에서 출토되는 鏡은 21건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유적연대 4세기의 慶尙南道 金海郡 酒村面 良洞里 441호 고분에서 출토된 方格T字鏡은 "倭에서 鏡의 배포주체인 畿內세력으로부터의 직접 유입과 그 배포를 받은 倭세력을 통한 2차원적인 유입이 상정되며", 그 중 전자에서는 "倭로부터 鏡의 논리와 가치체계가 함께 유입되는 것과 그 논리와 가치체계와 분리되어 유입되는 것" 모두 3가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上野 2004, 414p】. 이 3가지 가능성 속에서 반도 남부지역에 유입된 倭鏡은 이 외에도 慶南·昌原市 三原洞 18호 옹관묘에서 출토된 內行花文倭鏡, 慶北·慶州市 皇南里에서 출토된 捩紋鏡을 들 수 있고, 이 3鏡 모두 4세기, 4세기 후반에 제작된 鏡과 유적이라는데, 반도 남부지역과 열도의 倭와의 지역 간 교류의 증거이다.

【반도지역에서의 철·철기의 생산과 유통】

한반도의 철기의 기원에 대하여 村上恭通씨【村上 2008】는, 그 最古는 "平安北道(渭原郡) 龍淵洞 적석총 출토품이며 다름 아닌 戰國시대 후기 燕國産 철기이며", 중국에서는 '钁'(역주: 괭이)라고 부르는 농기구(鐵斧)의 칼끝으로 보이는 것이다【村上 2008, 151p】라고 한다. 그 연대는 약 기원전 3세기라고 한다【李南珪 2001】. ≪史記≫ 卷69·貨殖列傳에는 "夫燕 … 北隣烏桓夫余, 東綰穢貉朝鮮眞番之利"라고 나와서 燕과 '朝鮮' 간의 경제교류가 번성했었다는 사실은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 반도지역 중서부지역에서는 忠淸南道 扶餘郡 合松里, 全羅北道 長水郡 南陽里, 忠淸南道 唐津郡 素素里에서는 '钁'과 鑿(역주:끌)이 세트로 부장되어 있고, '钁'은 双合笵이어서, 燕의 제철기술과 반도지역에 존재하던 청동기 주조기술이 복합되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하면서, 반도지역에서 생산기술이 변모한 흔적을 지적하고 있다【村上 2008, 152p】. 그 연대는 "기원전 4세기 후반경이 상한이 될 것이다"라고 春成씨는 村上論을 정리하여【春成2008, 160p】, 철문화의 시작 상한을 올릴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도 남부의 철문화의 事情을 고고학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관찰해 보고자 한다.

인접한 중국 戰國의 燕으로부터 유입된 주조철기와 그 기술이 반도지역에서 변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東潮씨에 의하면 반도에서 철기가 처음 보이는 예로는 "북부지

역에서는 咸鏡北道 會寧郡 五洞, 咸鏡北道 茂山郡 虎谷洞 등 기원전 5~4세기로 戰國시대(燕)와 병행하는 시기이다. 남부지역에서는 南陽里(全羅北道 長水)·合松里(忠淸南道 扶餘)에서 기원전 3~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東 1999, 16p】라고 한다.

李南珪씨는 반도지역의 초기(철기 사용개시부터 삼국시대 직전까지)철문화의 시간차와 지역차라는 점에 대하여 '①淸川江 이북지역 ②豆滿江유역 ③大同江·載寧江유역 ④漢江유역 ⑤洛東江유역 ⑥그 외의 지역'으로 모두 6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李南珪 1991】.

또 東潮씨【東 1999】는 '동북아시아 諸지역의 철'의 事情과 출토유물을 함께 정리하고 반도북부의 '樂浪郡, 玄菟郡과 遼東郡', '부여', '변한', '진한', '마한' 5지역으로 철기문화의 다양성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반도지역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서북부, 동북부, 동남부, 남서부에서는 철의 문화는 다양하며 또 각 지역도 세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반도지역의 지역적이면서 다양한 철문화 속에서, 반도와 열도 지역에 있어서의 철문화 교류와 큰 관계가 있는 樂浪지역의 철기에 대하여 東씨는 '漢系統'과 '非漢系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이 철문화는 "삼한·倭의 철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 즉 樂浪지역의 철기 생산과 남부로의 보급은 양방향이라는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東씨는 平安南道 龍岡郡 葛峴里 甲墳과 咸鏡南道 金野郡의 所羅里 토성에서 출토된 '납작도끼(板狀鐵斧)'는 "변한지역에서 공급된 '철'일 것"이라고 설명한다(23p). ≪三國志≫ 弁辰傳 "國出鐵, 韓, 濊, 倭皆從取之"의 기록에 부합되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樂浪郡에서 남부의 변한지역으로 전해진 문물에는 銅鏡, 貨錢(상술), 漆器, 鐵鼎, 銅鍑(金海 大成洞 29·47호 고분), 鐵鋌 등이 알려져 있는데【東 '無文土器·原三國時代の鐵器出土地地名表', 441p】, 최근에는 慶尙南道 茶戶里(昌原市 東邑)유적의 문화가 樂浪문화와의 연결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國立中央博物館 2008】.

前漢의 鏡과 五銖錢, 筆의 출토는 반도 남부지역, 武末씨의 제안하는 海村과 樂浪郡과의 통교를, 나아가 북부九州産 銅矛의 출토는 倭지역과의 교류를 상기시킨다【李健茂 1992, 井上主稅 2008】.

東씨가 정리하고 있는 변한, 진한, 마한지역에 해당하는 鐵鋌을 매장하는 유적은 慶尙北道에 42고분(高靈郡 池山洞고분군 외), 慶尙南道에서는 61고분(釜山廣域市 福泉洞고분군 외), 全羅南北道에서는 9고분(靈光郡 禾坪里 下花B호 고분 외), 忠淸南北道에서는 5고분(中原郡 樓岩里1호 고분 외)을 열거하고 있고 방대한 양의 鐵鋌이 출토되고 있다

【東 '鐵鋌出土地地名表' 453p】.

茶戶里의 철이 상징하는 사회에 대하여 村上恭通씨【村上 1998】는 茶戶里유적 분묘군은 BC1세기 후반에서 AD2세기 전반까지의 유적인데 "茶戶里 분묘군 시대에는 세형동검이 약간 남아 있을 뿐이어서 그 대부분이 철로 전환되었다는 상황을 간파할 수 있다"【村上 1998, 27~28p】 "대량의 철기를 이 시기부터 부장하고 있었던 사실을 같이 고려해 보면 철기의 소유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威信財로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며 바야흐로 변한·진한의 철이 선진지대인 樂浪에는 공급되었지만 남부에서는 威信財의 단계였던 것이다. 철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를 표현하는 단계는 '철은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의 초기이다. 철이 보급되어 首長의 小國家 통합이 진행되는 단계는 3~4세기의 交代期 즈음에 그 계기가 보인다.

村上恭通씨는 313년에 樂浪郡, 다음 해인 314년에 帶方郡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 그 통치기구가 붕괴되자 변·진한은 이 2郡에 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변·진한에서 철과 철기생산의 독자적인 발달을 촉진시켰다고 정리하고 있다【村上 1998, 28p】. 그 구체적인 예는 金海市 良銅里 고분군과 金海市 大成洞 고분군 출토품 중 武具와 馬具에서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열도에서의 철·철기의 생산과 유통】

그럼 일본열도에서는 철기의 사용과 생산이 어떻게 시작되고 보급된 것일까? 潮見浩씨가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자.

우선 일본에서 '철기의 사용은 彌生시대부터'라는데 이는 일찍이 1937년에 조사된 奈良縣 磯城郡 田原本町의 唐古유적에서 출토된 '녹각으로 만든 손칼자루(鹿角製刀子柄) 속에서 鐵銹'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철기는 彌生시대 전기부터 존재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고 그 "철기의 보급은 상당히 후의 일이지만" "청동기보다도 오래 전 시기부터 존재했고 彌生문화의 성립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주목받았지만【潮見 1979, 1982】, 열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철기는 福岡縣 糸島郡 二丈町 石崎의 마가리타(曲がり田)유적에서 출토된 鐵片이며 이 유물은 繩文시대의 종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潮見 1986】.

또 1955년에 조사된 熊本縣 玉名郡 天水町의 齊藤山패총에서 출토된 철기(칼날 부근의 파편이고 중국 戰國~前漢의 자귀(手斧)와 통한다)가 '彌生시대 초반'의 철기에 추가

되어 있다. 또 같은 종류의 철기가 同縣 鹿本郡 植木町의 轟유적에서 출토되고 있고 쇠도끼(鐵斧)로 추정된다.

潮見씨는 이러한 열도의 最初期 철기에 대해 판단하여 "한반도 남부로부터 우리나라에 철 소재가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 의존하여 우리나라의 철기가 개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으로는 곤란한 듯 보인다"【潮見 1979, 58p】라고 한다.

초기에 속하는 철기의 製法이 단조인지 주조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 문제인데 반도지역에는 樂浪郡의 설치를 계기로 단조철기가 보급된다【東 1999, 118p】. 이 외에도 彌生시대 전기의 철기에는 鹿兒島縣 日置郡 金峰町의 高橋패총에서 鐵片 2, 山口縣 下關市의 綾羅木鄕유적에서 쇠손칼(鐵刀子) 1, 鐵鉇(역주:고대의 대패) 1, 廣島市의 中山패총에서 鐵片 2, 兵庫縣 明石市의 吉田패총에서 鐵片 4, 大阪府 堺市의 요쓰이케(四ッ池)유적에서 쇠손칼(鐵刀子) 1 등 加工具와 절삭용으로 사용되었던 철기인 공구가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彌生시대의 철기 중에서는 長崎縣 壹岐市의 두 유적에서 출토된 예가 주목받고 있다. 長崎縣 壹岐市 芦辺町의 하루노쓰지유적은 彌生 중기층에서는 석기와 철기가, 후기층에서는 철기만이 출토되고 있어서 '彌生시대의 생산용구가 석제용구에서 철제용구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노쓰지유적과 壹岐市 勝本의 唐神유적에서 출토된 손칼(刀子), 자귀(手斧), 鐵鉇 등의 공구류, 鋤先·鍬先·낫(鎌) 등의 농기구류, 화살촉(鏃), 작살(銛), 낚싯바늘 등의 수렵, 어로용구 등에 철기가 사용되고 있어서 彌生후기부터 철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열도서부에 철기가 보급된 것이 확인되는 배경으로, 소재인 철의 생산이 개시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이입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새로운 과제이다.

壹岐市의 두 유적에서 출토된 5~20㎝정도의 棒狀·板狀의 철에 주목하여, 岡崎敬씨는 이를 철기의 소재라고 판단하여 ≪魏志≫ 韓傳의 '韓와 濊와 倭'가 변한, 진한의 철을 구한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岡崎 1957】. 그리고 潮見浩씨는 福岡縣 飯塚市 立岩 10, 28, 34, 35, 39호 고분 등에서는 前漢鏡과 함께 철제무기가 출토되고 福岡縣 前原市 鑓溝유적, 佐賀縣 唐津市 櫻馬場유적, 佐賀縣 神崎郡 東背振村의 三津永田유적에서는 後漢鏡과 함께 철제무기가 출토되고 있다. 前漢鏡의 건너온 사정에는 漢四郡의 설치가 촉진시킨 九州지역 족장과 중국과의 교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漢書≫ 卷28下·地理志·燕地條 "樂浪海中有倭人, 分爲百餘國, 以歲時來獻見云")

橋口達也씨【橋口 1970】에 따르면 중국에서 철제무기가 보급된 것은 前漢 후반부터

이고, 열도서부지역에서 前漢鏡과 함께 철제무기가 출현하는 것은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기원 1세기 전반경"이어서, "초기의 철제무기는 중국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럼 '철의 생산'에 대해 살펴보자. 철기생산 개시시기와 철기보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 배후로서 철의 생산개시를 추정한다면, 철기의 생산은 九州에서는 전기 말이나 중기 전반, 九州以東에서는 중기 후반이다. 그리고 철기의 보급은 중기와 후기의 교차시기이므로 "철의 생산은 전기 말 혹은 중기 전반에 우선 九州에서 개시되어 九州 以東지역에서는 중기 후반이 된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후기 이후"【潮見 1979, 58p】라고 할 수 있다고 潮見은 정리한다.

宣石悅씨는 철의 교역에 있어서 對馬國과 一支國, 즉 對馬와 壹岐가 반도와 열도지역 간에 '南北에 市糴'(≪三國志≫ 魏書·東夷傳·倭人條)을 하는 중계적 역할을 평가한다. 아마도 해산물과 납작도끼(板狀鐵斧), 덩이쇠(鐵鋌)를 교환하고 또 열도지역에는 후자와 쌀, 진주, 목재 등의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宣 2004, 140p】.

【열도 서부지역의 철 사정】

≪日本書紀≫ 卷9의 氣長足姬尊(神功皇后) 攝政52年 秋9月 丁卯朔丙子條에 "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 則獻七枝刀一口, 七子鏡一面及種種重寶.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邈七日行之不及. 当飮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372년에 상당한다. 이렇게 漢江 상류로 추정되는 谷那鐵山(江原道 鐵原이나 黃海道 谷山郡)에서 채굴한 철을 倭國으로 보낸다고 하는 傳承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칠지도는 분명히 奈良縣 天理市의 石上神宮에 소장되어 있는 '七支刀'로 보이는데, 그 뒷면의 명문에는 백제인에 의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선사 이래로 이와 같은 칼은 아직 없었다. 백제의 왕세자가 왜왕을 위해서 만든('先世' '以來' '未' '有' '此' '刀' '百濟' '王世子' '倭王' '爲' '造') " 철검이다. 백제가 왜에게 철제품을 보낸 구체적인 사례이다.

東씨는 <고대동아시아에서의 철의 생산과 유통(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鐵の生産と流通)>【東 1999】에서 3세기 후반의 반도와 열도의 정치사회를 기록한 ≪三國志≫ 魏書 韓傳에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라고 나오고, 또 ≪後漢書≫ 卷85 東夷·韓傳에도 "國出鐵. 濊倭馬韓並從市之. 凡諸貿易皆以鐵爲貨"라고 나오고, ≪三國志≫ 魏書 倭人傳에는 "對馬國 … 乘船南北市糴" "一大國 … 亦南北市糴"라고 나오며, 또 同韓傳에는 제주도 사회를 "乘船往來市買中韓"라며 해협을 왕래하는 경

제활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東씨가 정리한 바에 따르자면 "彌生·고분시대의 주조철기는 한반도에서 온 舶載品으로 보이며 각각의 유형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東씨는 熊本 齊藤山유적에서 나온 쇠도끼(鐵斧)는 慈江道 渭原龍淵洞출토 쇠도끼(鐵斧)와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한다【東 1999】.

단 彌生·고분시대유적에서 출토된 제철 슬래그(鐵滓)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상황으로는 열도지역의 제철 개시는 5세기 중반쯤으로 보이고【關 2008】, 또 "한국보다 500년 정도 늦게" "고분시대 후기인 6세기 중반에는 서일본 일부 지역에 제철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穴澤 2004】. 그 이전에는 <魏志弁辰傳>의 기술대로 반도지역에서 철 소재가 반입되어 제품화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4. 주거의 교류

彌生시대에 반도지역과 열도지역 간에 서로 도래하는 사람, 渡航하는 사람들 또 渡來·渡航地에 정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수량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반도지역에서 열도지역으로 도래하여 정착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 반대 경우의 숫자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집자리과 고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의 경제성장에 의해 각지에서 주택건축과 도로의 건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집자리을 포함하는 취락유적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中村 2001】.

집자리의 대표적인 예는 ≪東アジア考古學辭典≫ 【西谷正編 2007, 東京堂出版】등에 따르자면 아래의 유적들이 있다.

①東川洞유적(大邱廣域市 北區)은 92, 93년에 경북대학교가 조사, 삼국시대의 집자리.
②大坪里유적(慶尙南道 晋州市 大坪面) 97년에 경남대학교박물관이 조사, 자연제방 정상부에 움집터(竪穴住居跡) 12기가 발굴됨.
③漢沙洞(京畿道 河南市)에서는 숭실대학교 등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움집터(竪穴住居跡) 38기, 저장구덩이(貯藏穴) 34기 등이 발견되었다.
④泉田里(江原道 春川市 新北面), 長川里(全羅南道 靈岩郡 西湖面)에서는 84~86년에

목포대학교박물관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움집터(竪穴住居跡) 11기가 발견되었다.

⑤默谷里유적(慶尙南道 山淸郡 山淸邑)

⑥大坪里 玉房유적(慶尙南道 晋州市 大坪面)에서는 자연제방을 이용하고 있고, 움집터(竪穴住居跡), 1지구에서는 2중의 환호(環壕, 폭2m, 깊이1m)가 조사되었다. 목책(木柵), 60여기의 주거지, 2지구에서는 30여 주거지, 3지구에서는 10여기의 움집터, 4지구에서는 1~2중의 환호, 60여기의 집자리(세로 4m정도, 폭 3m, 깊이는 20~80㎝), 5지구 500여 집자리는 休岩里式이 주이다. 6지구는 경작지이고 7지구는 2중의 환호와 20여 집자리, 8지구는 집자리, 9지구는 10여개 집자리가 발굴되었다.

⑦梨琴洞(慶尙南道 泗川市)에서는 집자리 22기와 고인돌(支石墓), 돌널무덤(石棺墓), 돌뚜껑움무덤(石蓋土壙墓)이 발굴되었고, 松菊里型집자리와 松菊里型 甕棺이 확인되고 있다.

⑧檢丹里유적(慶尙南道 蔚山廣域市 蔚州區 熊村面)은 본격적인 청동기시대의 유적, 독립된 산의 능선 중앙부인 해발 206.4m의 고지대로부터 서쪽으로 뻗어간 낮은 구릉에 위치함. 88년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함. 298m의 타원형 環壕가 하나 발견됨, 단면은 V, U자형이고 깊이가 1.5m, 넓이는 2m정도, 내부에는 움집터(竪穴住居跡) 42기, 굴립주건물이 1기, 외부에 50기의 움집터(竪穴住居跡), 고인돌(支石墓) 3기 등이 발굴되었다. 유적은 長徑이 118m, 短徑이 70m, 내부 면적은 6000㎡이다【≪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년 12월】.

⑨川上里유적(慶尙南道 蔚山廣域市 蔚州郡 凡西面) 96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조사. 움집터(竪穴住居跡).

⑩松菊里유적(忠淸南道 扶余郡 草村面)은 낮은 구릉지에 소재하는 민무늬토기시대(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유적이다. 1974년 이래 1997년까지 순차적으로 국립중앙·부여박물관이 조사한 결과, 유적의 면적은 30ha~61ha의 넓은 범위이고 움집터(竪穴住居址)가 42기 확인되고 있다. 자루형태의 수혈식저장구덩이(竪穴式貯藏穴)에서는 탄화된 자포니카 계통 쌀이 출토되었다. 총연장 470m의 木柵列과 環壕, 상자돌널무덤(箱式石棺墓), 소형독널무덤(小型甕棺墓)이 있고, 遼寧式銅劍, 간돌검(磨製石劍), 민무늬토기, 토기가마터(土器窯跡) 등 민무늬토기시대의 문화를 전하고 있다. 목책 기둥은 직경이 20~60m, 기둥간 간격은 1.8m이다. 민무늬토기는 아가리가 밖으로 바라진 松菊里토기, 붉은토기(丹塗土器)도 출토되고 있다.

⑪麻田里(忠淸南道 論山市 練武邑)에서는 민무늬토기시대의 집자리 4기가 발굴되었다.

⑫無去洞 玉峴유적(慶尙南道 蔚山廣域市 南區), 98~99년에 경남대학교박물관, 밀양대학교박물관이 조사. 해발 35m의 평탄한 구릉과 그 아래의 평지에 주거지와 수전터가 발견됨. 주거지는 장방형(8, 0~9, 0×5, 0m가 최대)과 방형(5.0m이내)이 주류임. 기둥구멍은 장방형주거에서는 3~5개가 2~3열로 배치되어 있다. 방형에서는 주로 2개가 2열로 되어 있다. 구멍 2개가 1열인 것과 기둥구멍이 없는 것도 있다. 구멍무늬(孔列文)와 짧은 빗금무늬(短斜線)민무늬토기, 간돌검(磨製石劍), 돌화살촉(石鏃), 반달돌칼(半月形石刀), 가락바퀴(紡錘車) 등이 출토되었다. 수전터와 움집터가 54여기 발견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고고학사전≫ 2001】.

⑬勒島유적(慶尙南道 泗川市) 85~86년에 부산대학교박물관이 조사로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철기시대(BC2세기 중엽~BC1세기 전반)의 유적이고, 패총, 주거지11, 須玖Ⅰ式 彌生토기, 墳墓, 46ha(≪한국고고학사전≫)를 발굴하고 있다【沈奉謹·金宰賢 2001】.

이들 가운데 교류라는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松菊里유적과 그 토기이다. 松菊里式토기는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몸통이 계란모양으로 부풀어 있고 아가리는 밖으로 바라져 있다. 20~40㎝의 규모가 많고 높이는 10㎝정도에서 80㎝나 되는 것도 있다. BC6~5세기경에 나타난 토기라고 정리될 수 있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01】.

그리고 그 松菊里型 주거란 竪穴의 중앙부에 타원형의 구덩이와 함께 2개의 기둥구멍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扶余의 松菊里, 瑞山의 休岩里, 靈岩 長川里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 서남부에 분포하고 있지만, 동남내륙부의 黃江, 南江 일대, 大邱, 慶州, 蔚州, 梁山 등부터 반도 중서부에서는 安城川유역, 忠淸, 全羅 일대에서 넓게 발굴되고 있다【端野 2008】. 그리고 濟州島, 일본의 九州지방에도 有溝莖式 琵琶型銅劍의 분포와 겹치면서 확인된다. 내부 중앙의 타원형의 구덩이 속에 기둥구멍이 있는 것은 休岩里型 주거지, 구덩이 외부에 기둥구멍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檢丹里型 주거지로 분류되지만, 타원형의 구덩이 주변에 기둥구멍이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타원형의 구덩이 외곽에 4개의 보조적 기둥구멍이 배치된 대형주거지도 있다. 이 구덩이는 초기에는 석기를 제조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생각되었지만 나중에는 저장용 등 다양화한다고 이해되고 있다【≪한국고고학사전≫】.

그런데 열도지역 가운데 반도지역에서 도항·도래해 오는 배는 우선 북부 九州로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약간 내륙부로 나아간다. 後藤直씨는 福岡市 博多區에 소재한 諸岡유

적의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그곳에서 후기민무늬토기시대 전반의 조선계 민무늬토기가 다량으로 발굴되고 있고, 彌生사회에 일시적으로 도래하여 彌生사회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결국에는 반도로 귀환한 사람들을 찾아냈다【後藤直 1979】.

그리고 片岡宏二씨는 열도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松菊里型토기를 정리하여 반도지역에서 열도지역으로 반입된 것, 또 도래인이 열도지역에서 제작한 것, 그리고 열도지역에서 이것을 모방한 것이 오늘날 출토되고 있다고 정리하고 '일본에서 출토되는 松菊里型토기 및 그와 관련된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奈良縣에서 長崎縣까지 모두 19유적에서 확인하고 또 열도 서부지역 각지에서 민무늬토기를 확인하고 있다【片岡 1999】.

그래서 片岡씨는 열도 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그것이 彌生토기와 융합된 擬조선계 민무늬토기를 정리하여 도래인이 주거하는 취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형태를 분류하고 있다.

片岡씨는 우선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擬조선계 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취락유적을 현해탄 연안부에 산재해 있는 타입(島嶼분산 타입)과 북부 九州의 내륙부에 집중되는 타입(내륙집중 타입)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擬조선계 민무늬토기는 출토되지 않고 조선계 민무늬토기의 출토도 몇 개정도에 불과해서, 소규모 교역과 우연히 흘러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한 유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선착장 유적이 발견된 長崎縣 壹岐市의 하루노쓰지유적과 福岡縣의 마가리타유적, 같은 현의 御床松原유적 등이 있어, 이를 島嶼 타입이라고 명명하였다. 후자에서는 조선계 민무늬토기와 擬조선계 민무늬토기가 독, 항아리, 굽다리접시(高坏) 등 각 器種 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彌生사회에서 자리 잡고 살던 도래인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福岡市 博多區의 유적과 연관시켜서 '諸岡 타입', 또 佐賀縣 小城市 土生유적과 연관시켜서 '土生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4> 참조】.

'諸岡 타입'이란 "彌生시대 전기 말 기간 중에 운영되었고 그 단계에서 조선계 민무늬토기와의 共伴을 끝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유적에서는 취락 자체가 전기 말 전후 시기까지 선행·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래집단은 기존의 彌生취락의 일각으로 이주하였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생활한 후 다시 어디론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後藤直씨의 견해를 계승하여 조선계 민무늬토기는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래인의 생활영역은 彌生취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정리하고 있다【片岡宏二 1999】.

한편 '土生 타입'은 彌生시대 전기 말부터 출현하지만 주체는 중기 초반부터 전반에

걸친 유적이다. 土生유적에서는 擬조선계 민무늬토기가 골고루 출토되고 있어서 "土生타입 도래인의 주거기간은 장시간이며 타지로 이동하는 일 없이 彌生人에게 동화되어 마지막까지 그 땅에 정착하여", 집단으로서 彌生취락 내의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독자적이면서 완결에 가까운 취락구성을 만들고 있었고 결국에는 彌生人에게 동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片岡 1993, 1999, 108p】.

최근 주목받고 있는 渡航에 대한 것은 慶尙南道 泗川市 勒島【부산대학교 박물관 1989, 沈·金 2001】와 釜山市 東萊區 東萊城유적 외에 반도 남부지역에서 彌生土器系 토기가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河 1990, 申·河 1991】. 勒島에서 출토된 彌生土器系 토기는 열도지역산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申·河 1991】 열도지역에서 반도지역으로 건너간 문물에는 청동기(中廣銅矛) 6점과 청동거울 6면이 확인되고 있고【小田·武末 1991】, 두 지역 간의 상호 왕래가 창출해 낸 문화교류도 주목받고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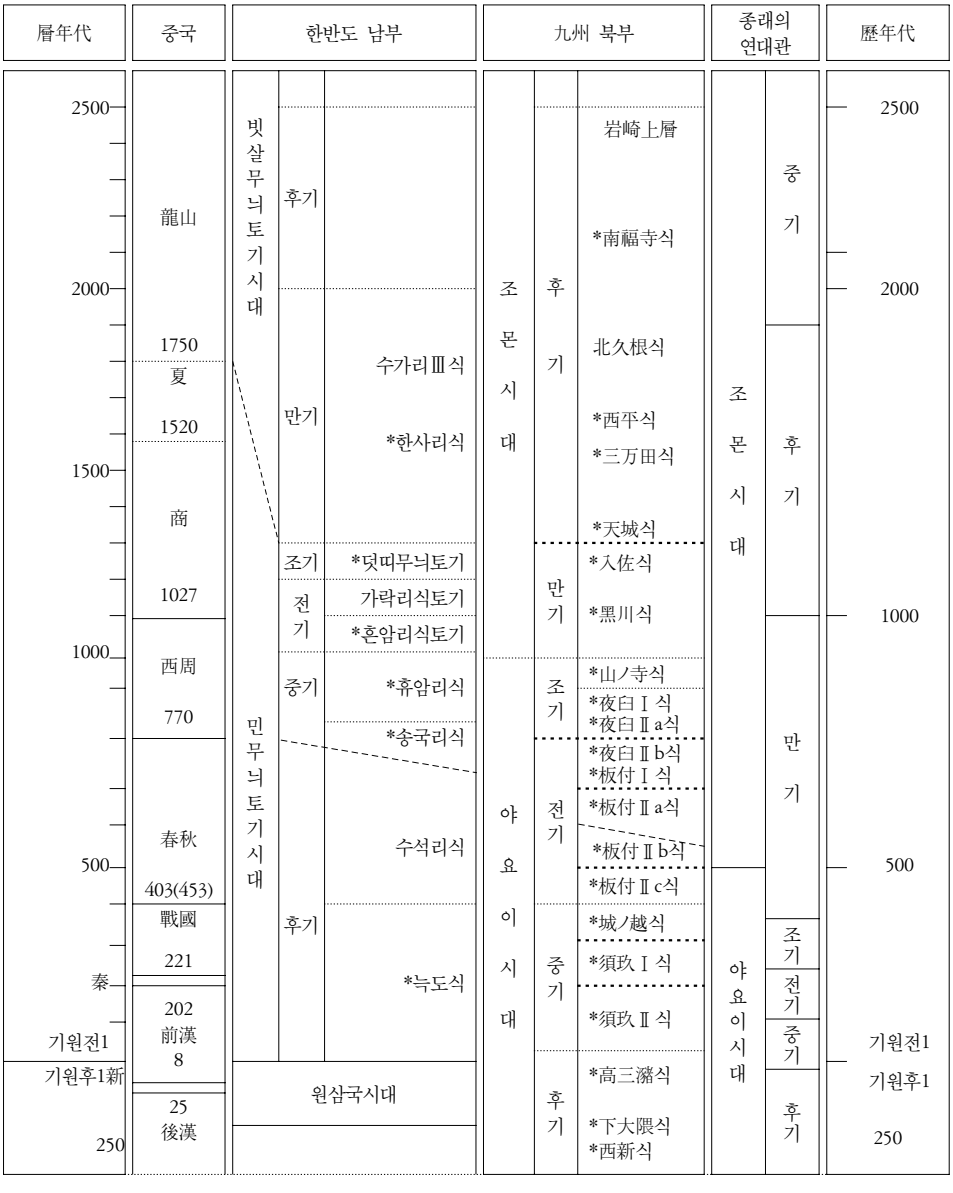
·東潮, 1999 ≪古代東アジアの鐵と倭≫, 溪水社
·穴澤義功, 2004 <日本古代の鐵生產>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第110集
·穴澤咊光, 1993 <遺物からみた交流と交易－日本から出ていったもの－> ≪古墳時代の硏究≫ 13, 雄山閣出版
·井上主稅, 2008 <茶戶里遺跡にみられる倭と關連する考古資料について> ≪茶戶里遺蹟發掘成果人 課題≫, 國立中央博物館
·岩永省三, 1991 <日本における靑銅武器の渡來と生產の開始>, 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岩永省三, 2005~2009 <考古學－弥生時代の實年代－> 1~6 ≪九州大學總合硏究博物館ニュース≫ NO.5~12
·岩永省三, 2005 <弥生時代開始年代再考> ≪九州大學總合硏究博物館硏究報告≫ NO.3
·上野祥史, 2004 <韓半島南部出土鏡につい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第110集
·岡崎敬, 1957 <日本における初期鐵製品の問題> ≪考古學雜誌≫ 42卷序
·岡崎敬, 1982 <日本および韓國における貨泉·貨布および五銖錢について> ≪森貞次郎博士古稀記念古文化論集≫ 上卷
·岡部裕俊·比佐陽一郎·片多雅樹, 2004 <三坂七尾遺跡出土貨泉について>
·小田富士雄, 1982 <日·韓地域出土の同范小銅鏡> ≪古文化談叢≫ 第9集
·小田富士雄, 1992 <日韓の出土五銖錢·第2報> ≪古文化談叢≫ 第28集
·小田富士雄·武末純一, 1991 <日本から渡った靑銅器>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河仁秀, 1990 <無文土器時代> 釜山市立博物館, ≪東萊福泉洞東萊城遺跡≫
·片岡宏二, 1991 <日本出土の無文土器系土器>, 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片岡宏二, 1993 <朝鮮系無文土器の彌生土器化とその社會> ≪MUSEUM≫No.503
·片岡宏二, 1999 <渡來人の擴散と足跡>, 同 ≪弥生時代渡來人と土器·靑銅器≫, 雄山閣出版
·片岡宏二, 1999 ≪弥生時代渡來人と土器·靑銅器≫, 雄山閣出版
·片岡宏二, 2006 ≪弥生時代渡來人から倭人社會へ≫, 雄山閣出版<第1章 渡來文化と渡來人>
·韓國國立中央博物館, 1978~1991 ≪松菊里≫ Ⅰ·Ⅱ·Ⅲ·Ⅳ(Ⅴ는 公州博物館 1993년. Ⅵ는 扶餘博物館 2000년 발행)
·金京七, 2007 <南韓地域 窒塘 漢代金屬貨幣 人 益 性格> ≪湖南考古學報≫ 第27号
·全玉年, 1996 <韓國考古學의 時期區分과 年代觀>第40回埋藏文化財硏究集會≪考古學과 實年代≫, 埋藏文化財硏究會
·金貞培, 1979 <韓國考古學에서의 時代區分問題> ≪韓國學報≫ 第14輯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Ⅰ≫ (일본어판은 2001년, 六一書房)
·國立慶州博物館, 1987 ≪菊隱 李養璿蒐集文化財≫
·國立慶州博物館, 2007 ≪國立慶州博物館 鏡鑑≫
·國立中央博物館, 2008 <茶戶里遺跡과 日本> ≪茶戶里遺蹟發掘成果와 課題≫ , 293頁

·國立中央博物館, 2008 ≪哀企合 紗稅 蟹虞 陷硲軒－益 降閏引 奄系－≫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7 ≪弥生時代はいつから!?－年代研究の最前線－≫)
·後藤直 1979 <朝鮮系無文土器> ≪三上次男先生頌壽記念東洋史·考古學論集≫ (同, ≪朝鮮半島初期農耕社會の研究≫ 〔同成社, 2006年〕에 수록)
·後藤直, 1979 <朝鮮系無文土器> ≪三上次男先生頌壽記念東洋史·考古學論集≫
·後藤直, 2006 ≪朝鮮半島初期農耕社會の研究≫, 同成社
·潮見浩, 1979 <倭の鐵> 上田正昭ほか ≪ゼミナール日本古代史≫ 上,光文社
·潮見浩, 1982 ≪東アジアの初期鐵器文化≫, 吉川弘文館
·潮見浩, 1986 <鐵·鐵器の生產> 岩波講座 ≪日本考古學≫ 3 <生產と流通>
·申敬澈, 1980 <熊川文化期紀元前上限說稅再考> ≪釜大史學≫ 第4輯(後藤直 역은 ≪古文化談叢≫ 第8集〔1981年4月〕에 수록)
·申敬澈·河仁秀, 1991 <後期無文土器と 弥生土器系土器> 小田富士雄·韓炳三 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沈奉謹·金宰賢, <勒島遺跡の意義>, 田中良之編 ≪弥生時代における九州·韓半島交流史の研究≫ 2001年. 九州大學大學院比較社會文化研究院)
·關淸, 2008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列島の鐵生產> 王維坤·宇野隆夫, ≪古代東アジア交流の總合的研究≫,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宣石悅, 2004 <加耶の鐵と倭の南北市糴>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10集
·高尾浩司, 2001 <青谷上寺地遺跡と妻木晩田遺跡－絢爛豪華な鐵器文化－>, 鐵器文化研究會·鳥取縣敎育委員會編 ≪日本海(東海)がつなぐ鐵の文化≫
·高倉洋彰, 1990 ≪日本金屬器出現期の研究≫ <第1章韓國原三國時代の銅鏡>
·高倉洋彰, 1991 <日本の大陸系靑銅器>, 小田富士雄·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高倉洋彰, 1995 ≪金印國家群の時代－東アジア世界と弥生社會－≫, 靑木書店
·武末純一, 1991 ≪土器からみた日韓交涉≫, 學生社
·武末純一, 2002 <弥生文化と朝鮮半島の初期農耕文化>, 佐原眞編 ≪古代を考える稻·金屬·戰爭－弥生－≫, 吉川弘文館
·田中良之·溝口孝司·岩永省三·Tom Hjghman, 2004 <弥生人骨を用いたＡＭＳ年代測(予察)> ≪日·韓交流の考古學≫, 九州考古學會·嶺南考古學會
·中村愼一編, 2001 ≪東アジアの囲壁·環濠취락≫ 平成12年度科研特定研究(Ａ1)≪日本人および日本文化の起源に關する學際的研究≫
·西谷正, 1982 <朝鮮考古學の時代區分について> ≪考古論集－小林行雄博士古稀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平凡社
·西谷正, 2009 ≪魏志倭人傳の考古學≫, 學生社
·西本豊弘編, 2006 ≪弥生時代の新年代≫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 第1卷, 雄山閣
·西本豊弘編, 2007 ≪縄文時代から弥生時代へ≫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 第2卷, 雄山閣出版
·橋口達也, 1970 <中國(戰國~漢代)における鐵器－とくに鐵製武器を中心として－> ≪たたら研究≫ 第17号
·端野晋平, 2008 <松菊里型住居の傳播とその背景>, 九州大學考古學研究室50周年記念論文集≪九州と東アジアの考古學≫
·春成秀爾, 1990 ≪弥生時代の始まり≫, 東京大學出版會

・春成秀爾, 2006 <弥生時代の年代問題>, 西本豊弘編,≪弥生時代の新年代≫, 雄山閣出版
・春成秀爾, 2007 <大陸文化と弥生時代の實年代>, 廣瀨和雄編 ≪弥生時代はどう変わるか≫ 學生社, 21頁
・春成秀爾, 2008 <解題>, 春成秀爾・西本豊弘編著≪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出版
・春成秀爾・西本豊弘編, 2008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出版
・福泉博物館, 2009 ≪神의 거울 銅鏡≫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
・宮本一夫編, 2005 ≪弥生時代成立期における渡來人問題の考古學的研究≫,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考古學研究室
・宮本一夫編, 2008 ≪壹岐カラカミ遺跡Ⅰ－カラカミ遺跡東亞考古學會第2地点の發掘調査－≫,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考古學研究室
・宮本一夫編, 2009年 ≪壹岐カラカミ遺跡Ⅱ－カラカミ遺跡東亞考古學會第1地点の發掘調査－≫,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院考古學研究室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青木書店
・村上恭通, 2008 <東アジアにおける鐵器の起源>, 春成秀爾・西本豊弘編著≪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弥生時代のはじまり第3卷, 雄山閣出版
・森岡秀人, 2003 <貨幣>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學－交流と交易－≫ Ⅲ, 同成社
・森浩一, 1983 <稻と鐵の渡來をめぐって－民俗文化の傳統を再評価する－>日本民俗文化大系第3卷
・吉井秀夫, 2002 <朝鮮の墳墓と日本の古墳文化>, 鈴木靖民編 ≪倭國と東アジア≫ 日本の時代史2, 吉川弘文館
・李健茂, 1992 <茶戸里出土稅筆拭 企馬食> ≪考古學誌≫ 第4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福岡考古≫ 第21号
・李南珪, 1982 <南韓初期鐵器文化稅 一考察> ≪韓國考古學報≫ 13
・李南珪, 1991 <韓國の初期鐵器と鐵生產>, 小田富士雄・韓炳三 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李南珪, 2001 <韓半島鐵器文化の歷史－統一新羅時代以前－>, 鐵器文化研究會鳥取縣教育委員會 編, ≪日本海(東海)がつなぐ鐵の文化≫
・李榮勳, 1991 <韓半島南部の中國系青銅器>, 小田富士雄・韓炳三 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扁－≫, 六興出版

〈표 1〉 탄소 14년대의 較正 연대에 입각한 민무늬토기·彌生시대의 實年代

(藤尾愼一郎 2008)



*는 연대를 계측한 토기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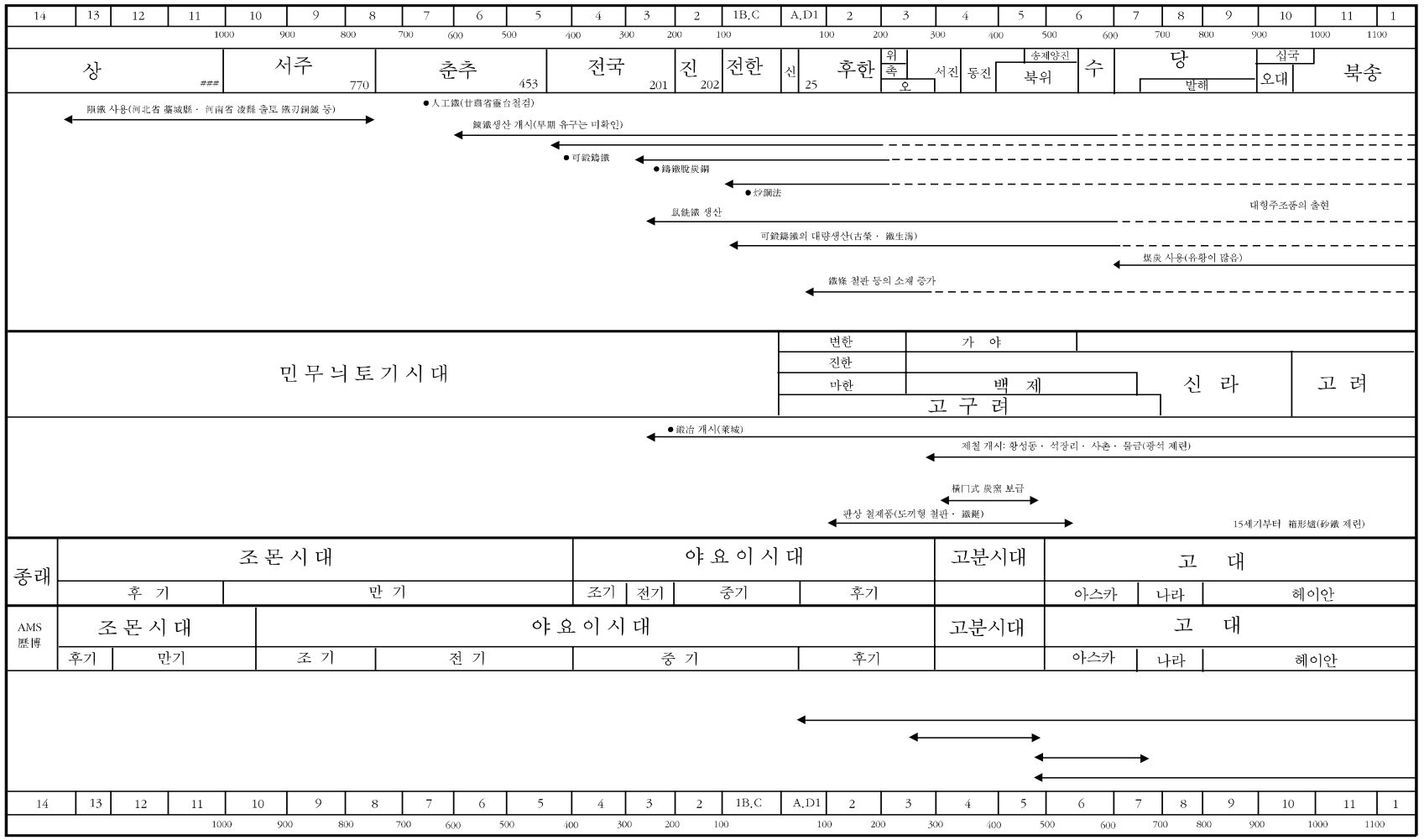
탄소 14년대의 較正 연대에 입각한 민무늬토기·彌生시대의 實年代

(武末純一·李昌熙의 병행관계와 탄소 14년대를 바탕으로 작성, 2008.2.5)

이전의 표와 비교하면 늑도식의 하한을 高三潴식 중간까지로 병행시켰다. 점선은 AMS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점선이 두꺼우면 試料 수도 많고, 精度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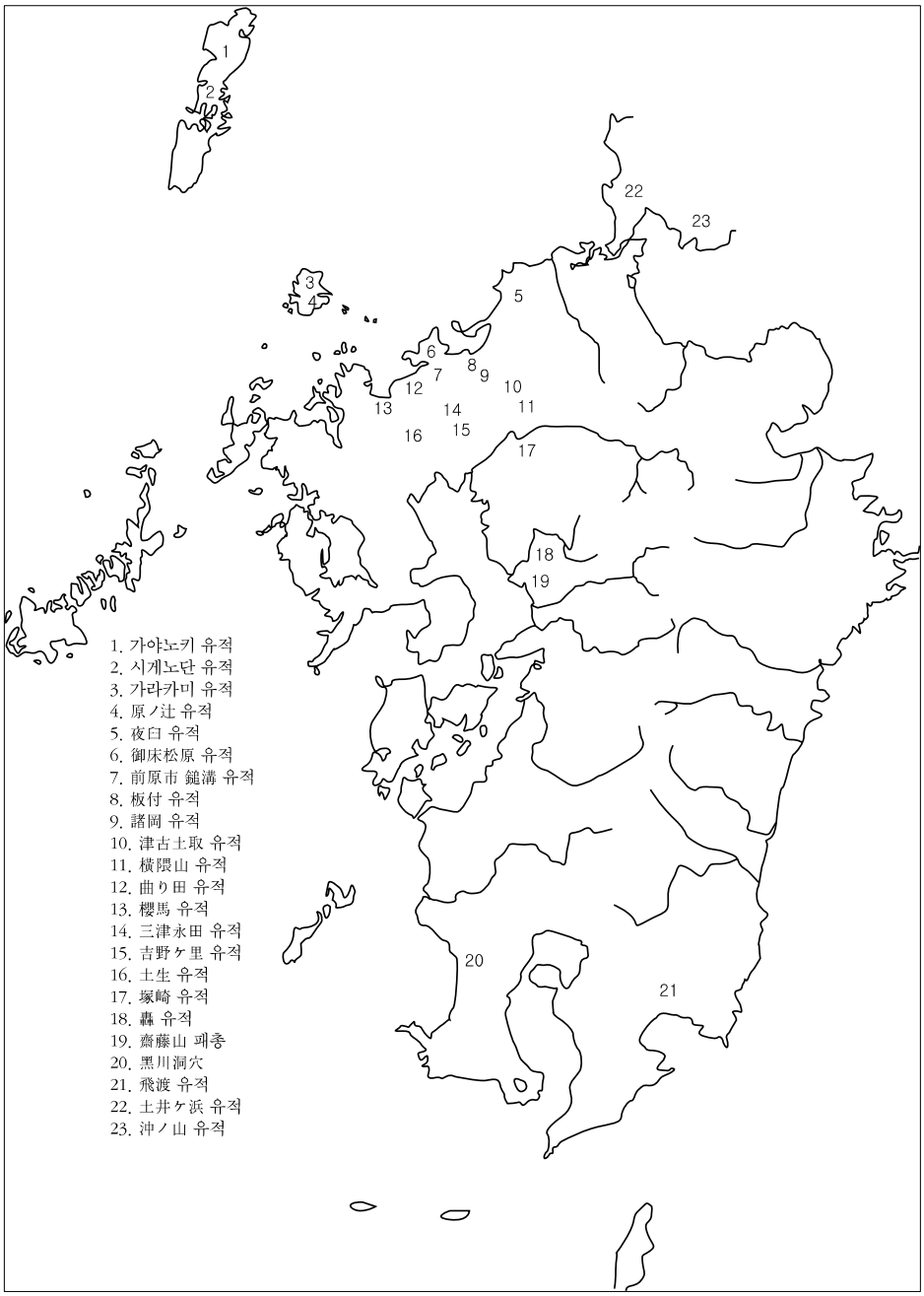
〈표 2〉 북부 九州의 야요이토기와 한반도 남부의 민무늬토기·삼한토기의 병행관계

〈표 3〉 동아시아의 철 및 철 생산 연표 (關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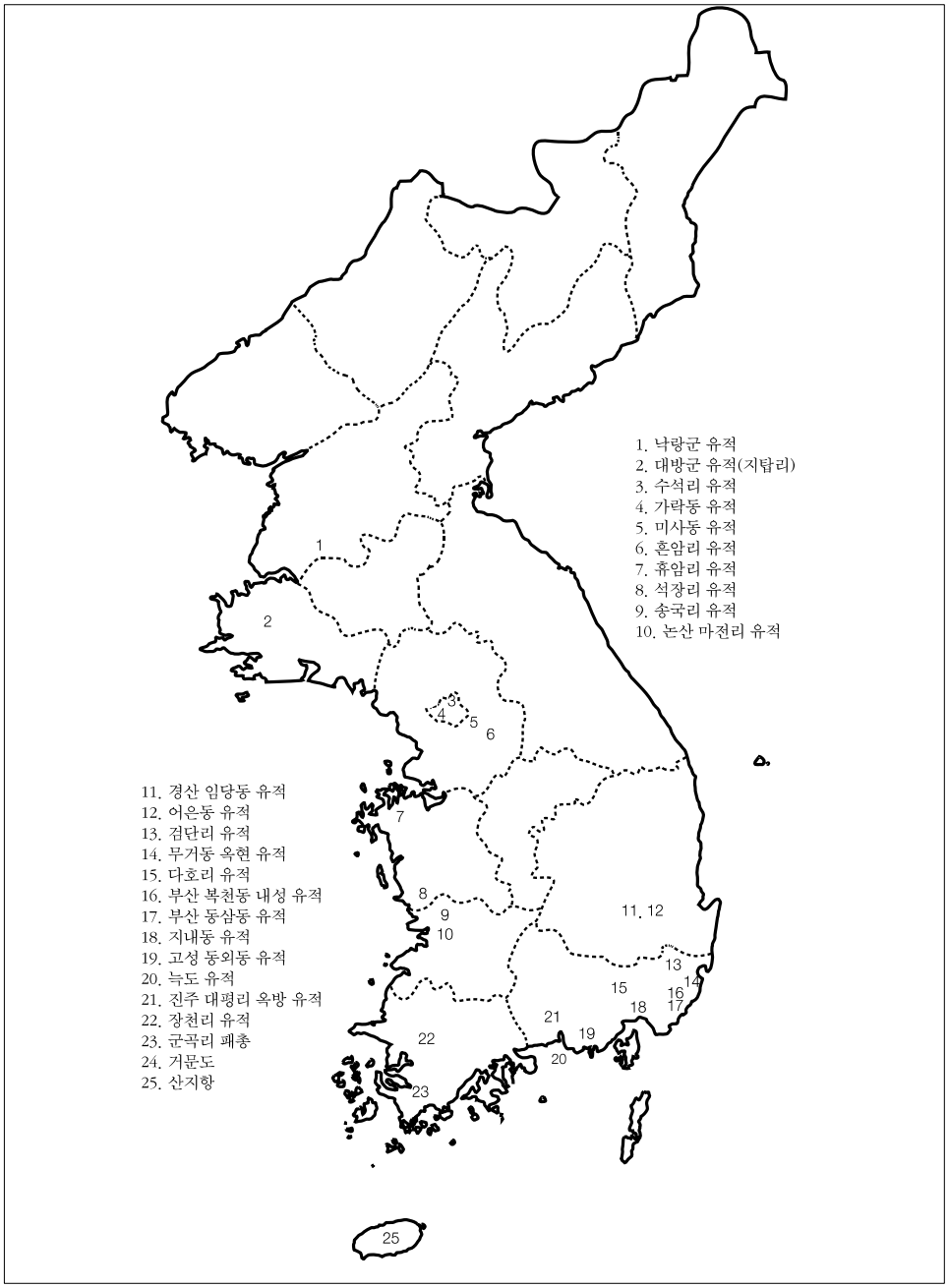


〈표 4〉 도래인 집락의 각 유형과 그 집락 (片岡廣二 2002)

		주요 유적명	소재지
島嶼 타입 유적	(전기 말~중기 초두)	天ヶ原 유적	長崎縣壹岐郡勝本町
		古田 유적	長崎縣北松浦郡小佐々町楠泊免
		里田原 유적	長崎縣北松浦郡田平町
		曲り田 유적	福岡縣糸島郡二丈町石崎
		綾羅木郷 유적	山口縣下關市綾羅木
	(중기 후반)	オテカタ 유적	長崎縣下縣郡嚴原町豆酘
		大田原 유적	長崎縣下縣郡峰町
		原の辻 유적	長崎縣壹岐郡芦戸町
		沖ノ島 유적	宗像郡大島村沖の島
		御床松原 유적	福岡縣糸島郡志摩町大字御床
		六連島 유적	山口縣下關市大字六連島字音次郎
		秋根 유적	山口縣下關市秋根町
내륙 타입 유적	諸岡 타입 유적 (전기 말)	諸岡 유적	福岡市博多區諸岡岡ノ前
		板付 유적	福岡市博多區板付
		那珂君木 유적	福岡市博多區那珂
		那珂 유적	福岡市博多區那珂1丁目
		三國の鼻 유적	小郡市津古 및 横隈
		横隈鍋倉 유적	小郡市横隈字鍋倉
		みくに東 유적	小郡市横隈字鍋倉
		横隈山 유적	小郡市三澤古賀
		江津湖 유적	熊本縣熊本市健軍町苗代津
		御幸木部町	熊本縣熊本市御幸木部町
		石の瀬 유적	熊本縣宇土市石小路
	土生 타입 유적 (중기 초두~중기 전반)	土生 유적	佐賀縣小城郡三日月町土生
		自在 유적	佐賀縣小城郡小城町
		切畑A 유적	佐賀縣神崎郡神崎町大字城原
		上黒井 유적	佐賀縣神崎郡千代田町大字姉
		姉 유적	佐賀縣神崎郡千代田町大字姉
		黒井 유적	佐賀縣神崎郡千代田町大字姉
		貴別当神社 유적	佐賀縣神崎郡千代田町大字姉下西
		鍋島本村南 유적	佐賀縣佐賀市鍋島町大字本村南
		津留 유적	佐賀縣佐賀市鍋島町大字八戸溝
		宇土城跡 유적	熊本縣宇土市古城町・神馬町



[지도 1] 九州 주요 관련 유적



[지도 2] 한반도 주요 관련 유적

제2장 문헌·문자사료를 통해 본 고대 일한의 지역 간 교류

제1절 BC 1세기~AD 1세기 일한의 지역 간 교류

1. 중국 문헌을 통해 본 일한의 지역 간 교류

열도지역의 彌生중기 후반에서 후기 후반에 이르는 시대와 병행하는 반도지역의 역사는 거의 삼한시대에 해당한다. 이 시대의 열도지역의 역사는 중국왕조의 正史類, 그 중에서도 東夷傳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중국왕조 측이 기록한 조공·공물을 바친 것(貢獻)에 대한 기록이 중심이어서, 반도와 열도 두 지역 간의 교류를 고찰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 중국 문헌은 隔靴搔痒인 감이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중국왕조와 이 두 지역과의 通貢을 통하여 두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소지역국가, 여기에서는 자연 지리적인 조건으로 한정된 소국가에서, 그것들이 연합과 戰勝 등을 통해 통합된 보다 넓은 국가, 또는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國家群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 시대의 중국正史에 기록되어 있는 두 지역의 중국왕조에 대한 通貢기사를 통해 두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조선(衛氏朝鮮) 사회－漢의 郡縣통합의 前提－】

BC 108년과 다음 해인 BC 107년에 한반도의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설치된 前漢의 郡縣, 이른바 漢 4郡은 성쇠를 거쳐 樂浪郡은 313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그리고 樂浪郡 남부에 설치된 帶方郡은 3세기 초에 公孫氏에 의해 314년에 중국 동북부의 遼西로 철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400여 년간의 郡縣의 역사는 바로 고대의 반도와 열도 두 지역 간의 교류가 고대국가의 關係史로서 진행되는 전단계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시대의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단순히 반도와 열도라는 단어로 한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一元的인 또 단층적인 사회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司馬遷의 ≪史記≫ 卷115·朝鮮傳에도 보이지만 고조선 사회에

는 중국 동북부의 燕을 비롯한 세력에게 떠밀린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었고 거기에 크게는 二元的인 사회와 문화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史記≫ 朝鮮列傳을 통해 고조선 땅에는 토착민과 함께 중국 동북부와 山東半島 지역에서 온 이주민이 더해져 하나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고 또 그 주변에 '眞番' '朝鮮'이라는 정치사회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한반도 서북부에 다양한 정치사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史記≫ 이후의 역사서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魏略≫ (魏·魚豢撰, 3세기말 성립)의 逸文을 편찬했던 張鵬一의 ≪魏略輯本≫ (1924년)卷21·朝鮮에도 '중국 망명'집단이 '朝鮮' 속에서 일정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또 3세기말의 陳壽가 편찬한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東沃沮에도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라고 나와서, 마찬가지로 '衛滿朝鮮'에는 '燕齊趙의 民'이 유입된 사회가 있어서 이 朝鮮을 沃沮, 濊, 고구려, 진한이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사회가 반도지역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문자기록에서 열도지역의 정치사회에 관해서는 겨우 '倭'와 '倭人'이란 단어로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주거지와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모호한 기록이다. 이 단계에서는 '倭'란 중국대륙의 동쪽 해역에 사는 종족으로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 '倭人'과 반도지역의 교류에 관한 것은 문헌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

【사료Ⅰ: BC 1~AD 1세기】

·≪山海經≫ 第十二海內北經 '蓋國, 在鉅燕南倭北, 倭屬燕.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論衡≫ 第八·儒增篇 '周時, 天下太平, 越裳獻白雉, 倭人貢鬯'
·≪論衡≫ 第十九·恢國篇 '成王時, 越常獻雉, 倭人貢暢'

·≪史記≫ 卷115·朝鮮列傳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 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浿水爲界, 屬燕. 燕王盧綰反入匈奴, 滿亡命, 聚党千餘人, 魋結蛮夷服而東走出塞, 渡浿水, 居秦故空地上下鄣, 稍役屬眞番朝鮮蛮夷及故燕齊亡命者, 王之. 都王險.

·≪魏略輯本≫ (1924年) 卷1·朝鮮
燕人衛滿亡命, 爲胡服東渡浿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中國亡命, 爲朝鮮藩屛. 準信寵之拜以博士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辺. 滿誘亡党, 衆稍多. 乃詐遣人告準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戰不敵也.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濊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 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戶二萬. 昔箕子旣適朝鮮, 作八條之敎以敎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 朝鮮侯準僭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魋結夷服, 復來王之.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참고문헌】

·井上秀雄, 1973 <中國文獻にあらわれた朝鮮, 韓, 倭について> (≪日本書紀研究≫ 第7卷, 후에, 井上,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1978年〕에 수록)
·井上秀雄, 1975 <中國古典の朝鮮と倭>, 國分直一編 ≪倭と倭人の世界≫, 每日新聞社
·江上波夫, 1979 ≪ゼミナール日本古代史≫의 '序', 光文社
·藤井重雄, 1969 <倭人管見－論衡と後漢書烏桓鮮卑傳－> ≪新潟大學敎育學部紀要≫ 第10卷 第1号
·三上次男, 1966 <古代の西北朝鮮と衛氏朝鮮國の政治·社會的性格>> (同,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李丙燾, 1976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일역은 1980 ≪韓國古代史研究－古代史上の諸問題－≫, 學生社)

【樂浪郡과 玄菟郡－반도의 다양성과 열도사회－】

前漢의 武帝는 朝鮮(衛氏朝鮮)의 衛右渠가 外臣의 職約에 반하여, 朝鮮의 남쪽에 있는 眞蕃이 漢왕조에 조공하는 길을 막은 것에 진노하여, 元封3년(BC.108년)에 육군과 해군을 파견하여 朝鮮을 멸망시켰다. 이에 朝鮮의 옛 도읍지(王儉城)가 있었던 땅 즉 오늘날의 平壤市 樂浪區域에 朝鮮縣을 설치하고 합계 15縣을 통괄하는 樂浪郡의 治所를 여기에 두었다. 마찬가지로 朝鮮에 속해 있던 지방에도 眞蕃郡, 臨屯郡, 玄菟郡의 3郡을 설치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북부전체와 남부에 이르는 朝鮮의 땅은 漢의 郡縣통치로 새롭게 편성되게 되었다.

4군 중에서 臨屯郡과 眞蕃郡의 郡治의 소재는 ≪資治通鑑≫ 卷21·漢紀13·世宗下之上에 인용된 ≪茂陵書≫ 속에 "臨屯郡, 治東暆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領十五縣. 玄菟郡, 本高句驪也, 旣平朝鮮, 併開爲郡, 治沃沮城,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驪西北. 眞番郡, 治霅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領十五縣. 余據後廢臨屯眞番二郡"이라고 나와 있듯이 2郡의 治所는 長安에서 6~7천 여리, 약 3천km 내외의 땅에 있었지만, 정확한 소재지는 오늘날에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眞番의 이름은 ≪史記≫ 卷69·貨殖列傳에는 "夫燕 …중략… 北, 隣烏桓夫余.

東, 綰穢貉朝鮮眞番之利"라고 나오고, 또 同卷115·朝鮮列傳에도 '朝鮮王 滿'의 용맹스러운 위세 앞에 眞蕃과 臨屯이 복속했다라고 전하는("以故滿得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기록으로 볼 때도 眞番과 臨屯 2郡은 樂浪郡에 접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眞蕃郡의 治所라고 하는 雪縣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 후보지가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治所를 全羅道를 포함하는 반도 남부로 추정하는 南在說 외에 京畿道로 추정하는 北在說이 있다【山尾1985】.

4군 중에서 長安에서 가장 먼 땅에 郡治를 둔 眞番郡은 ≪漢書≫ 卷7·昭帝紀에 "始元五年(BC82) 夏, 罷儋耳眞番郡"이라고 나오고, ≪後漢書≫ 卷85·東夷傳·濊에도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幷樂浪玄菟"라고도 나와서, BC 82년에 臨屯, 眞番 2郡은 폐지되었고 그에 속해 있던 縣은 인접한 樂浪과 玄菟 2郡에 편입된 것이다.

이리하여 반도의 중·북부는 眞番 臨屯 2郡의 縣을 편입한 소위 '大樂浪郡'과 玄菟郡의 치하 중에서 겨우 한반도의 땅에 이르는 縣, 그리고 남부에는 郡縣지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뒤에 서술하듯이 폐지된 2郡의 全縣이 樂浪郡에 편입된 것은 아니다.

한편 玄菟郡은 ≪漢書≫ 卷7·昭帝에 "元鳳六年(BC75) 春正月, 募郡國徒, 築遼東玄菟城"라고 나오고 있고 위에서도 서술했던 2郡의 改廢라고 하는 漢의 동방정책과 연동하여 그 郡治가 遼東으로 이동했다. 이 이른바 '제2玄菟郡'은 漢의 동방정책이 후퇴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고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東沃沮에 "(전략)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라고 나오듯이 '夷貊' 즉 고구려의 저항을 받아 초기의 治所에서 후퇴하였던 것이며 옛 玄菟郡의 東辺에 있던 屬縣은 樂浪郡에 편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한반도 동북부에 걸친 제2玄菟郡의 규모에 대해서는 ≪漢書≫ 卷28·地理志第 8 下에 "玄菟郡, 武帝元封四年(BC.107)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應劭曰, 故眞番朝鮮胡國〕. 戶四万五千六, 口二十二万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전략 … 應劭曰, 故句驪胡〕, 上殷台, 西蓋馬"라고 나와서 屬縣은 적다. 또 大樂浪郡에 대해서도 "樂浪郡. 武帝元封三年開. 莽曰樂鮮, 屬幽州. 應劭曰, 故朝鮮國也 … 後略〕戶六万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万六千七百四十八. 縣二十五, 朝鮮〔應劭曰, 武王封箕子於朝鮮〕, 訾邯, 浿水, 含資, 黏蟬, 遂成, 增地, 帶方, 駟望, 海冥, 列口, 長岑, 屯有, 昭明〔南部都尉治〕, 鏤方, 提奚, 渾彌, 呑列, 東暆〔應劭曰, 移〕, 不而〔東部都尉治〕, 蠶台, 華麗, 邪頭昧, 前莫, 夫租"라고 나와서 屬縣과 戶口數를 기록하고 있다.

또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東沃沮에는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嶺之東, 分治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嶺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이라고 나와 2개의 都尉로 통괄되는 총 12縣이 樂浪郡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여서 樂浪郡의 屬縣은 13縣에서 25縣으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南部都尉를 둔 昭明縣이 舊 眞番郡의 땅을 또 東部都尉를 둔 不而縣이 旧臨屯郡의 땅을 통제했던 것이다.

東部都尉가 主管했던 7縣이란 東暆縣에서 夭租까지의 縣이다. 폐지된 臨屯郡의 治所였던 東暆縣에 都尉를 파견하지 않고, 臨屯郡下의 不而縣을 大樂浪郡의 동부지배의 거점으로 중시했던 것은 역시 동북쪽에 접해 있던 고구려의 압박에 대비한 조치일 것이다.

광역화한 '大樂浪郡'에서는 舊 眞番郡의 땅은 南部都尉가 또 舊 臨屯郡의 땅을 東部都尉가 다스리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군현의 사회규모를 보면, 大樂浪郡에서는 1戶 당 6.5口 이고, 1縣 당 호수는 2,512戶와 16,270口가 된다. 이에 반해 제2 玄菟郡은 현은 겨우 3현이고, 1戶 당 4.9口이며, 1縣 당 호수는 15,002戶와 73,948口가 된다. 통계 숫자에 오류가 없다면, 이 2郡의 사회 구성의 차이는 엄청나다. 특히 縣의 人戶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樂浪郡은 25縣을 통할하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는데, 人戶의 파악이 玄菟郡의 그것보다도 훨씬 침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人戶 파악의 차이는 그 사회 구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大樂浪郡과 제2玄菟郡은 後漢代에 명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後漢書≫ 卷23·郡國志5·第23·幽州에는 이른바 제3玄菟郡에 대하여 "玄菟郡〔武帝置, 雒陽東北四千里〕. 六城. 戶一千五百九十四, 口四万三千一百六十三. 高句驪, 遼山遼水出〔山海經, 遼水出白平東. 郭璞曰, 出塞外御白平山. 遼山小遼水所出〕. 西蓋馬. 上殷台. 高顯, 故屬遼東. 候城, 故屬遼東. 遼陽, 故屬遼東〔東觀書. 安帝卽位之年(106년), 分三縣來屬〕"이라고 나온다. 또 大樂浪郡에 대해서는 "樂浪郡〔武帝置, 雒陽東北五千里〕十八城. 戶六万一千四百九十二. 口二十五万七千五十. 朝鮮, 謰邯, 浿水, 含資, 占蟬, 遂成, 增地, 帶方, 駟望, 海冥, 列口, 長岑, 屯有. 昭明, 鏤方, 提奚, 渾彌, 樂都"라고 나온다.

이에 따르자면 제2玄菟郡은 AD106년에 遼東郡의 북쪽 '200里'의 땅으로 西遷하게 되는데 이 이른바 제3玄菟郡에는 遼東郡의 3縣이 편입되어 있다. ≪漢書≫ 卷28·地理志第8下에 의하면 遼東郡의 3縣 중에서 候城은 遼東郡의 中部都尉를 파견하는 요충지였던 縣이다. 또 大樂浪郡은 25縣에서 東暆, 不而, 蠶台, 華麗, 邪頭昧, 前莫, 夭租 7縣이 이탈하여 18縣으로 감소했다. 이 7縣은 처음에는 臨屯郡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리하여 玄菟郡이 재차 西遷하고 大樂浪郡 중에서 동북부의 7縣이 郡에서 이탈하고

있는 정치동향, 그 배경은 역시 한반도 동북부에서 성장하고 있던 고구려의 팽창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2세기 초의 大樂浪郡은 1戶당 약 4.2口였고 1縣당 戶數는 3,416戶이므로 口數는 14,280口가 된다. 또 제3玄菟郡은 1戶당 27口였고 1縣당 약 266戶이므로 7,194口이다. 大樂浪郡과 제3玄菟郡의 사회구조 수치를 보면 제3玄菟郡의 戶數가 탈자 등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적다. 제3玄菟郡은 제2玄菟郡보다 3縣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人戶를 파악한 수가 적다. 이 수치에 오류가 없다면 제3玄菟郡은 高句驪縣을 통하여 高句驪族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 혹은 高句麗縣의 성격이 명목뿐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漢 武帝가 반도지역에 설치한 4郡 중에서 眞番郡과 臨屯郡은 중심에서 동떨어진(僻遠) 땅에 존재했기 때문에 樂浪郡에 합병되었지만 玄菟郡이 2번에 걸쳐 遼東으로 후퇴한 것은 전적으로 高句麗族의 저항 때문이었다.

반도지역에서는 漢代에 시작된 郡縣통치인 중앙집권통치기구에 대하여, 저항했던 고구려와 그 통치 하에서 지역의 지배와 문화를 획득했던 韓과 그 後方의 倭라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高句麗族이 郡縣지배에 대하여 저항하고, 韓族은 순응했던 것은 그 사회의 씨족제라는 틀에서 가족이 어느 정도 자립하고 있었는가의 차이와 또 수렵사회와 농경사회의 차이가 그 원인이며, 나아가서는 왕조가 수렵사회에 펼친 '羈縻'策이라는 간접통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중국왕조에 의한 반도지역 지배에 대한 저항과 순응(혹은 선택적 순응)이라는 2가지 자세가 그 후의 반도와 열도의 교류와 관계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참고문헌】

- 池內宏, 1951 <前漢昭帝の四郡廢合と後漢書の記事> <樂浪郡考> <遼東の玄菟郡と其の屬縣>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漢魏晋の玄菟郡と高句麗> <公孫氏の帶方郡設置と曹魏の樂浪·帶方二郡> <曹魏の東方經略> <晋代の遼東> ≪滿鮮史硏究≫ 上世·第1册, 吉川弘文館, 初版 1979年 第2版
- 栗原朋信, 1970 <漢帝國と周辺諸民族> 岩波講座世界歷史4 ≪東アジア世界の形成≫ Ⅰ
-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1993 ≪平成五年秋季特別展－弥生人の見た樂浪文化≫
-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硏究≫ 第1号, 東京大學文學部朝鮮文化硏究室
- 堀敏一, 2006 ≪東アジア世界の形成≫, 汲古書院

·山尾幸久, 1985 <中國史料に見える「倭」と「倭人」>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4号, 大和書房
·李成市, 1993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第一章東アジアの諸國と人口移動>, 岩波書店

【郡縣의 사회동향】

樂浪郡 治址(平壤市 樂浪區域 土城里)에서 발굴된 封泥에서는 '樂浪大守章' '樂浪大尹章'과 '樂浪守丞' '樂浪長史'의 장관과 차관직의 印 외에 '朝鮮令印' '朝鮮右尉' '駟望丞印' '屯有令印' '東暆長印' '不而長印' '海冥丞印' '昭明丞印' 등 각 縣의 장관, 차관의 직명날인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런 관리가 郡縣을 운영했지만 郡縣사회의 안정은 山東半島에서 樂浪郡으로 이주하는 자들을 불러들여 일정한 세력을 키운 자가 나타나고 있다. ≪後漢書≫ 卷76·循吏·王景傳에서 "王景. 字仲通, 樂浪誀邯人也. 八世祖仲, 本琅邪不其人…중략…乃浮海, 東奔樂浪山中, 因而家焉. 父閎, 爲郡三老. 更始敗, 土人王調殺郡守劉憲, 自称大將軍, 樂浪太守. 建武六年(AD30), 光武遣太守王遵將兵擊之, 至遼東. 閎與郡決曹吏楊邑等共殺調迎遵, 皆封爲列侯, 閎獨讓爵. 帝奇而徵之, 道病卒"이라고 볼 수 있듯이 樂浪郡에서는 '土人인 王調'가 太守를 살해하고 '大將軍樂浪太守'를 자칭한 것과 같이 郡縣통치에 저항하는 세력도 발생하고 있다. 그 한편으로는 이 王調를 살해한 王閎은 8代祖가 山東半島에서 온 이주자였다. 이 王調와 王閎 외에도 '王光'과 '王旰' 등과 같이 樂浪郡治에 토착화한 중규모 세력의 일족도 있었다.

樂浪郡의 정치사회는 언제까지나 그 이름과 같이 중국본토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郡縣 내 유력자의 탄생은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東沃沮에 "光武六年(AD30)省辺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 華麗, 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 主簿諸曹, 皆濊民作之. 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라고 나와서, 大樂浪郡下의 不耐·華麗·沃沮의 '渠帥'를 縣侯로 봉할 정도로 옛 臨屯郡 치하에 있던 沃沮族은 그 정치사회의 민족성을 유지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藤田亮策, 1948 <樂浪封泥攷><樂浪封泥續攷>同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窪添慶文, 1981 <樂浪郡と帶方郡の推移>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第3卷, 學生社

·全浩天, 1998 ≪樂浪文化と古代日本≫, 雄山閣出版
·高久健二, 2002 <樂浪郡と三韓>, 西谷正編 ≪韓半島考古學論叢≫, すずさわ書店
·田村晃一, 2001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군현에 대한 대응－마한과 왜 VS 고구려와 신라의 대립축 발생－】

BC 108년에 시작된 한반도의 중·북부와 중국 동북부에 걸친 중국왕조에 의한 이른바 4郡 통치는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또 4郡 사회가 균일했던 것도 아니다. 人戶 파악을 통한 신분지배 조직을 각각의 사회에 침투시키고자 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기반의 상황에 따라 순응과 저항의 자세가 표출된다. 4郡 중에서 樂浪郡은 313년에 한반도에서 遼東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4郡을 改廢시킨 정치사회의 동향의 근저에는 高句麗族과 濊族, 그리고 韓族의 정치사회의 구조의 차이가 있었다.

즉 씨족의 유대가 갖는 규제에서 人戶가 어느 정도 자립하여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있는가, 바꿔 말하자면 郡縣制 지배는 人戶의 개별 지배를 기본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씨족의 결합을 유지하는 部制의 강약의 차이에 따라 한반도 중·북부에 설치된 4郡 통치의 성패가 갈리게 된 것이다.

그 성패란 위에서 서술했듯이 高句麗族과 沃沮族, 濊族의 사회에 통치망을 구축했던 臨屯郡이 설치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저항 때문에 폐지되고, 玄菟郡은 2번의 西遷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반면 이른바 古朝鮮 사회를 기반으로 한 樂浪郡이 400여년에 걸쳐 존속하고 나아가 그 남부에 증설된 帶方郡은 100년 가까이 존속했다. 이 2郡은 그 남쪽에 접해 있던 韓族과 倭族의 諸 小國이 통교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자의 2郡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대응을 볼 수 있다. 이 대조적인 郡縣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상호관계를 낳은 하나의 원인이고 그 후 동아시아세계의 상호관계를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동아시아 諸 민족의 대조적인 郡縣에 대한 대응과 諸 민족 간의 상호관계의 동향은 아래의 사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료Ⅱ: AD 1세기】

① ≪後漢書≫ 韓傳 '建武二十年(AD44), 韓人廉斯人蘇馬諟等, 詣樂浪貢獻. 光武, 封蘇馬諟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
② 同 卷1·光武帝紀 '建武二十年秋, 東夷韓國人, 率衆詣樂浪內附'
③ 同 卷85·東夷傳序 '建武之初, (貊人)復來朝貢, 時遼東太守祭肜, 威讋北方, 聲行海表, 於是濊貊倭韓萬里朝貢'

④ 同 卷1·光武帝紀 '建武二十三年(47)冬十月, 高句驪率種人, 詣樂浪內屬'(同卷85·東夷·高句驪 '建武二十三年冬, 句驪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 詣樂浪內屬')
⑤ 同 卷85·東夷·倭傳 '建武中元二年(57),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称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⑥ 同 卷85·東夷·倭傳 '安帝永初元年(107), 倭國王帥升等獻生口百六十人, 願請見'(≪翰苑≫ 所載의 ≪後漢書≫ 佚文에서는 '倭面上國', 北宋版≪通典≫ 에서는 '倭面土國', ≪唐類函≫ 所引의 ≪通典≫ 에서는 '倭面土地')

2. 한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의 지역 간 교류

한국문헌 중 현존하는 最古의 편찬역사서인 ≪三國史記≫ 의 기록을 통해 반도와 열도지역의 교류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이 史書에 편찬된 특히 2~3세기에 상당하는 시대의 열도지역의 정치사회체는 '倭' '倭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 는 고려·仁宗 23년(1145년)에 宰相이었던 金富軾(1075~1151)이 감수하고 선칙을 받들어 편찬한(奉宣撰)의 紀傳体사서이다. 전50권 중 新羅本紀는 12卷, 高句麗本紀는 10卷, 百濟本紀는 6卷이다.

편찬대상의 시대를 보면 상당히 후세에 편찬한 것이지만 이 사서는, 고려 초기에 편찬되었다고 해석되고 있는 ≪海東三國史≫ (≪구삼국사≫ 라고도 칭함)와 ≪資治通鑑≫ 등의 중국사서를 참조하고 있고 또 신라시대에 저술된 ≪花郎世記≫ (8세기 초 金大問 저술)와 545년에 居柒夫 등이 수찬한 ≪國史≫ 와 또 신라 말기의 문인관료인 崔致遠의 저작 등을 참조했을 것이므로, ≪三國史記≫는 편찬이 해당 시대와 거리가 멀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新羅本紀>의 倭人관계기사를 불신할 수는 없다【高 1996】.

또 ≪三國史記≫의 수찬보다 약 140년 정도 늦게 고려의 승 一然(1206~1289)이 私撰한 ≪三國遺事≫ 속의 新羅史上의 遺事에서도 倭 관련 전승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사는 아래와 같다.

倭와 倭人이 <新羅本紀>에는 나오는데 이 시기에 상당하는 <百濟本紀>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倭, 倭人이 신라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관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金錫亨씨는【金 1969】 이 倭, 倭人의 근거지는 북부 九州라고 한다. 井上秀雄씨【井上 1991】는 나아가 倭, 倭人의 근거지를 加羅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新羅本紀>의 기사를 바탕으로 倭, 倭人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倭, 倭人은 신라에 대립적이었고 또 '渡海'해야 하는 바다 저쪽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倭, 倭人의 근거지가 '야마토'라든가, 倭, 倭人의 정치사회의 실태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기사가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거지를 '加羅', 북부 九州, 야마토 등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요점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이다.

어쨌든 倭, 倭人은 신라, 백제, 加羅 등과는 다른 정치사회이고 해상 건너편의 존재이지만 또 加羅지역에 나타나는 세력이다.

그런데 BC1세기~AD2세기까지의 기간 중 중국 사료에는 倭의 100여국과 韓의 씨족이 郡에 通貢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신라를 습격하는 倭人과 加羅는 對新羅관계에 있어서 공통된 입장에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신라는 진한 24국 중 1국이었다.

鈴木英夫씨【1996】가 밝히듯이 <新羅本紀>에 편년된 신라와 倭, 倭人, 倭國과의 관계기사는 ≪後漢書≫ 東夷傳에서 보이는 倭國과 韓의 기사에서 촉발되어 신라와 倭國의 通交를 구상했던 기사가 있다.

【BC 1세기】

① ≪三國史記≫ 卷1·新羅本紀 '始祖赫居世八年(BC50년)倭人行兵. 欲犯辺. 聞始祖有神德. 乃還'
② 同 '始祖赫居世三十年(BC28년)夏四月己亥晦. 日有食之. 樂浪人將兵來侵. 見辺人夜戶不扃. 露積被野. 相謂曰. 此方民不相盜. 可謂有道之國. 吾儕潛師而襲之. 無異於盜. 得不愧乎. 乃引還'
③ 同 '始祖赫居世三十八年(BC20년)春二月. 遣瓠公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卞二韓. 爲我屬國. 比年不輸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 對曰. 我國自二聖肇興. 人事修. 天時和. 倉庾充實. 人民敬讓. 自辰韓遺民. 以至卞韓樂浪倭人. 無不畏懷. 而吾王謙虛. 遣下臣修聘. 可謂過於禮矣. 而大王赫怒. 劫之以兵. 是何意耶. 王憤欲殺之. 左右諫止. 乃許歸. 前此中國之人. 苦秦亂. 東來者衆. 多處馬韓東. 與辰韓雜居. 至是寖盛. 故馬韓忌之有責焉. 瓠公者未詳其族姓. 本倭人. 初以瓠繫腰. 度海而來. 故称瓠公'

【AD 1세기】

① ≪三國史記≫ 卷1·新羅本紀 '南解次次雄元年(AD4년)秋七月. 樂浪兵至. 圍金城數重. 王謂左右曰. 二聖棄國. 孤以國人推戴. 謬居於位. 危懼若涉川水. 今隣國來侵. 是孤之 不德也. 爲之若何. 左右對曰. 賊幸我有喪. 妄以兵來. 天必不祐. 不足畏也. 賊俄而退歸'
② 同 '南解次次雄十一年(AD14년)倭人遣兵船百艘. 掠海辺民戶. 發六部勁兵以禦之. 樂浪謂內虛. 來攻金城甚急. 夜有流星. 墜於賊營. 衆懼而退. 屯於閼川之上. 造石堆二十而去. 六部兵一千人追之. 自吐含山東. 至閼川. 見石堆. 知賊衆乃止'
③ 同 '南解次次雄十六年(AD19년)春二月. 北溟人耕田. 得濊王印, 獻之'
④ 同 '儒理尼師今十三年(AD36년)秋八月. 樂浪犯北辺. 攻陷朶山城'
⑤ 同 '儒理尼師今十四年(AD37년)高句麗王無恤襲樂浪滅之. 其國人五千來投. 分居六部'
⑥ 同 '儒理尼師今十七年(AD40년)秋九月. 華麗不耐二縣人連謀. 率騎兵犯北境. 貊國渠帥以兵要曲河西敗之. 王喜與貊國結好'

⑦ 同 '脫解尼師今, 一云吐解. 時年六十二. 姓昔. 妃阿孝夫人.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有娠. 七年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 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 以帛裹卵幷寶物. 置於櫃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辺. 金官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BC19년)也. 時海辺老母. 以繩引繫海岸. 開櫃見之. 有一子兒在焉. 其母取養之. 及壯身長九尺, 風神秀朗. 智識過人. 或曰. 此兒不知姓氏. 初櫃來時. 有一鵲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 又解韞櫃而出. 宜名脫解. 脫解始以漁釣爲業. 供養其母. 未嘗有懈色. 母謂曰. 汝非常人. 骨相殊異. 宜從學以立功名. 於是專精學問. 兼知地理. 望楊山下瓠公宅. 以爲吉地. 設詭計. 以取而居之. 其地後爲月城. 至南解王五年(AD8년). 聞其賢. 以其女妻之. 至七年(AD10년). 登庸爲大輔. 委以政事. 儒理將死曰. 先王顧命曰. 吾死後無論子壻. 以年長且賢者繼位. 是以寡人先立. 今也宜傳其位焉'

⑧ 同 '脫解尼師今三年(AD59년)夏五月. 與倭國結好交聘'

⑨ 同 '脫解尼師今八年(AD64년)秋八十月. 百濟遣兵攻蛙山城. 冬十月. 又攻狗壤城. 王遣騎二千擊走之'

⑩ 同 '脫解尼師今十年(AD66년)百濟攻取蛙山城. 留二百人居守. 尋取之'

⑪ 同 '脫解尼師今十四年(AD70년)百濟來侵'

⑫ 同 '脫解尼師今十七年(AD73년)倭人侵木出島. 王遣角干羽烏禦之. 不克. 羽烏死之'

⑬ 同 '脫解尼師今十八年(AD74년)秋八月. 百濟寇辺. 遣兵拒之'

⑭ 同 '脫解尼師今二十一年(AD77년)秋八月. 阿飡吉門與加耶兵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飡. 賞功也'

⑮ 同 '婆娑尼師今六年(AD85년)春正月. 百濟犯辺'

⑯ 同 '婆娑尼師今八年(AD87년)秋七月. 下令曰. 朕以不德有此國家. 西鄰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 威不足畏. 宜繕葺城壘. 以待侵軼'

⑰ 同 '婆娑尼師今十五年(AD94년)春二月. 加耶賊囲馬頭城. 遣阿飡吉元. 將騎一千擊走之. 九月. 加耶人襲南鄙. 遣加(召)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 出戰負之. 虜獲甚多'

⑱ 同 '婆娑尼師今十七年(AD96년)九月. 加耶人襲南鄙. 遣加(召)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 出戰負之. 虜獲甚多'

⑲ 同 '婆娑尼師今十八年(AD97년)春正月. 擧兵欲伐加耶. 其國主遣使請罪. 乃止'

제2절 AD 2세기~3세기의 일한관계

1. 중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관계

4郡설치 후의 1세기 동안 韓, 倭, 濊, 貊 및 고구려는 樂浪郡을 통하여 조공하고 邑君의 칭호와 印綬를 얻어 朝謁하고 또 內附하는 者가 있었다. 그런데 樂浪郡 혹은 郡을 통하는 後漢 왕조와의 通交관계는 2세기에도 이어지지만 다른 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郡縣지배에 대한 저항이다. 고구려와 부여는 玄菟郡과 遼東郡에 대하여 通交와 공

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상의 대응을 취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遼東郡을 공격하고 또 濊, 貊과 함께 玄菟郡과 樂浪郡下의 華麗縣을 공격했던 적도 있다(AD 118).

2세기 후반 後漢의 중앙정권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는 郡縣에 속해 있던 주변 諸민족에 대한 통제에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諸민족 내부의 지배층 사이에 자립을 촉진시키게 된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의하면 고구려 왕가의 장자인 拔奇와 小子인 伊夷模가 대립하여 209년에는 伊夷模가 新國을 건설하고 拔奇가 遼東으로 도망가게 되는 내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三國志≫ 卷30·魏書·韓傳에는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桓靈之末(146~189년)'에 韓과 濊가 강성해져서 郡縣이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사태 속에서 郡縣의 民은 '韓國'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 郡縣의 民이 그 農工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韓國'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한 사태는 '韓의 國'내의 정치사회에 소국가적 사회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郡縣지배에 대응하는 韓族과 高句麗族의 동향은 왕권의 성장과 그에 대한 각 씨족의 집중을 통한 국가형성의 일단계라고 봐야 할 것이고, 이런 동향은 바다를 건너 倭國에서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사료⑫에서 볼 수 있듯이 倭國의 내란과 여왕 卑弥呼가 추대되기에 이르는 동향은 後漢 말의 왕조 중앙의 혼란과 한반도 남북에 있어서의 왕권의 성장과정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광범위한 연쇄라고 봐야 한다【池田 1998】. 倭國에서의 왕권의 성장이 한반도의 동향과 동떨어져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卑弥呼의 시대에도 분명하다. 그것은 그때까지 연면히 계속되어 온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 일체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AD 2세기】

① ≪後漢書≫ 卷85·東夷·高句驪 '和帝元興元年(105)春, 復入遼東, 寇略六縣, 太守耿夔, 擊破之, 斬其渠帥'

② 同 卷 5·安帝紀 '永初三年(109)春, 高句驪遣使貢獻'

③ ≪後漢書≫ 卷85·東夷·夫餘 '安帝永初五年(111), 夫餘王始將七八千人, 寇鈔樂浪, 殺傷吏民, 後復歸附'

④ ≪後漢書≫ 卷85·東夷·高句驪 '永初五年(111), 宮(太祖王)遣使貢獻, 求屬玄菟'

⑤ ≪後漢書≫ 卷85·東夷·高句驪 '元初五年(118), 復與濊貊寇玄菟, 攻華麗城'

⑥ 同 安帝紀 '建光元年(121년)春正月, 幽州刺史馮煥, 率二郡太守討高句驪, 穢貊, 不克. ○夏四月, 穢貊復與鮮卑寇遼東, 遼東太守蔡諷, 追擊戰沒. ○冬十二月, 高句驪·馬韓·穢貊, 囲玄菟城. 夫餘王遣子, 與州郡幷力討破之'

⑦ 同 安帝紀 '延光元年(122)春二月, 夫餘王遣子, 將兵救玄菟, 擊高句驪·馬韓·穢貊破之, 遂遣使貢

獻. 秋七月, 高句驪降'

⑧ ≪三國志≫ 卷30·魏書·高句麗 '宮死, 子伯固立. 順桓之間(126~167), 復犯遼東, 寇新安居鄕, 又攻西安平, 於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後漢書≫ 卷85·東夷·高句驪 '遂成死, 子伯固立. 其後濊貊率服, 東垂少事. 順帝陽嘉元年(132), 置玄菟郡屯田六部. 質桓之間(146~167)復犯遼東西安平, 殺帶方令, 掠得樂浪太守妻子')

⑨ 同 卷30·魏書·高句麗 '靈帝建寧二年(169), 玄菟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熹平中(172~178)伯固乞屬玄菟'

⑩ 同 卷30·魏書·韓 '桓靈之末(146~189년)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196~220년)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 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 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⑪ 同 卷30·魏書·高句麗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大加優居, 主簿然人等, 助度擊富山賊, 破之'

⑫ 同 卷30·魏書·倭人 '其國本亦以男子爲王, 住七八十年, 倭國亂, 相攻伐歷年, 乃共立一女子爲王, 名曰卑彌呼, 事鬼道, 能惑衆, 年已長大, 無夫壻, 有男弟佐治國'(≪後漢書≫ 卷８５·東夷·倭傳 '桓靈間(146~189년), 倭國大亂, 更相攻伐, 歷年無主, 有一女子, 名曰卑彌呼')

⑬〔'中平□年(184~189) '銘環頭大刀·'中平□年五月丙午造作文刀百練淸剛上應星宿□□□□'·奈良縣天理市東大寺山古墳出土〕

이러한 郡縣 내의 유력세력의 성장은 郡縣통치와 알력을 낳기에 이른다. ≪三國志≫ 卷30·魏書·東夷傳·韓에는 "桓, 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196~220년),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 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이라고 하고 있어서, 2세기 후반의 '桓靈之末' 즉 後漢의 桓帝(147~168년)와 靈帝(168~189년) 代에는 韓族과 濊族이 정치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黃巾의 亂으로 대표되는 後漢왕조의 혼란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樂浪郡과 그 屬縣의 통제에서 韓濊가 이탈하여 韓族의 '國', 즉 3세기에 그 상세한 내용이 魏王朝에 알려지는 樂浪郡의 남쪽에 접한 삼한의 땅에 郡縣에서 유입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2세기에는 後漢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자 그 주변의 郡縣에도 변동이 생겨나 遼東 방면에서는 玄菟郡의 小吏에서 입신한 公孫度가 遼東郡을 거점으로 자립된 정권을 세웠다. 公孫度는 바다를 건너 山東半島까지도 확보하고 스스로를 '遼東公平州牧'이라 칭하고 반도지역으로 진출하여 樂浪郡을 거두어 '遼東'의 '王'이라 할 만한 지방정권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아들인 公孫康은 樂浪郡 남부에 帶方郡을 개설하여 '政權'의 위세를 떨쳤기 때문에 韓과 倭의 諸소국들은 帶方郡에 왕성하게 通交해 왔다.

後漢 말의 혼란으로 인해 遼東을 거점으로 하여 자립한 公孫씨는 建安中(196~220년)에 樂浪郡 치하의 屯有縣 이남의 땅에 새롭게 帶方郡을 설치하고 한반도 중·남부에 대한 郡縣지배를 재편하고 그 강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公孫康은 公孫模와 張敞 등을 파견

하여 옛 郡縣의 유민을 모아 兵을 일으켜 韓과 濊를 토벌했기 때문에 公孫씨의 무위를 두려워한 韓族과 倭族은 帶方郡에 '屬'하기로 한다. 帶方郡의 治所는 오늘날의 黃海北道 鳳山郡 智塔里토성으로 比定되는데 이 郡에 '屬'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관계인 종속자세를 중심으로 한 通好와 이에 부수되는 경제·문화적 교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公孫씨의 樂浪·帶方 2郡지배가 오래가지는 못했다. 魏 明帝는 公孫씨가 3代에 걸쳐 遼東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東夷諸族의 魏로의 通好가 두절된 정황을 탐탁해하지 않아 東夷에 이르는 魏의 국제관계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景初中(237~239년)에 帶方郡 太守 劉昕과 樂浪郡 太守 鮮于嗣에게 군을 이끌고 公孫淵를 토벌하게 하여 樂浪·帶方 2郡을 魏의 동방정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公孫씨로부터 탈환했다(≪三國志≫ 卷30·東夷傳序 및 韓傳).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 韓 諸國의 수장인 '臣智'層은 2郡을 통하여 魏왕조에게서 '邑君'의 칭호와 그 '印綬'를, 그리고 次位인 首長은 '邑長'의 칭호와 그 印綬를 받았다. 이렇게 '印綬'를 몸에 지닌 자는 韓族사회에서는 '千有余人'에도 올랐다고 한다. 魏의 樂浪郡과 帶方郡을 기점으로 한 동방정책은 한층 더 韓族사회, 나아가 倭사회에 침투하여 그 정치사회에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 반도지역의 극적인 변동과 중국 왕조의 정치력과 문화적인 힘 앞에 고구려, 穢貊과 韓, 倭가 재빨리 대응해 간다. 魏가 246년(正始7)에 幽州刺史인 毋丘儉의 군을 파견하여 고구려에 큰 타격을 줘 고구려의 세력을 약화시키자 韓과 倭는 활발하게 魏에 通貢하고 있다. 倭의 여왕이 大夫인 難升米 등을 郡에 보내어 天使에게 朝獻하기를 요청하자 郡의 太守였던 劉夏가 倭의 使者를 京都(洛陽)까지 배웅했는데 이런 倭王의 적극적인 대응은 韓 諸國이 魏의 慰撫를 얻어 魏의 2郡에게 앞 다투어 通交하고 있었던 것이 배경이다. (【사료】 참조)

【AD 3세기 전반】

① ≪三國志≫ 卷30·東夷傳序 '公孫淵仍父祖三世, 有遼東, 天子爲其絶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景初中(237~239), 大興師旅誅淵, 又潛軍浮海收樂浪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② ≪三國志≫ 卷30·東夷·韓傳 '景初中(237~239),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 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余人. 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 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③ 同倭人傳 '景初三年(239년)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使朝獻, 太守劉夏遣吏將送詣京都. 其年十二月, 詔書報倭女王曰…중략…今以汝爲親魏倭王, 假金印紫綬…후략…'
④ 同倭人傳 '正始元年(240년), 太守弓遵遣建忠校尉梯儁等奉詔書印綬詣倭國, 拜假倭王, 幷齎詔賜金, 帛, 錦罽, 刀, 鏡, 采物, 倭王因使上表答謝詔恩'
⑤ 同倭人傳 '其四年(243년), 倭王復遣使大夫伊聲耆, 掖邪狗等八人, 上獻生口, 倭錦, 緯青縑, 緜衣, 帛布, 丹木□(犭+付), 短弓矢. 掖邪狗等壹拜率善中郎將印綬'
⑥ 同倭人傳 '其六年(245년), 詔賜倭難升米黃幢, 付郡假授'
⑦ 同濊傳 '正始六年(245년)樂浪太守劉茂, 帶方太守弓遵以遼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擧邑降'
⑧ ≪三國志≫ 卷4·魏書·三少帝紀4(齊王芳) '(正始)七年(246년)春二月, 幽州刺史毋丘儉討高句驪,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 各率種落降'
⑨ 同濊傳 '其(正始)八年(247년),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⑩ 同倭人傳 '其(正始)八年, 太守王頎到官. 倭女王卑彌呼與狗奴國男王卑彌弓呼素不和, 遣倭載斯, 烏越等詣郡說相攻擊狀. 遣塞曹掾史張政等因齎詔書, 黃幢, 拜假難升米爲檄告喩之. 卑彌呼以死, 大作冢, 徑百餘步, 狗葬者奴婢百餘人. 更立男王, 國中不服, 更相誅殺, 當時殺千餘人. 復立卑彌呼宗女壹與, 年十三爲王, 國中遂定. 政等以檄告喩壹與, 壹與遣倭大夫率善中郎將掖邪狗等二十人送政等還, 因詣臺, 獻上男女生口三十人, 貢白珠五千, 孔青大句珠二枚, 異文雜錦二十匹'
⑪ ≪三國志≫ 卷4·魏書·三少帝紀4(陳留王奐) '(景元)二年(261년)秋七月, 樂浪外夷韓, 貊各率其屬來朝貢'

樂浪·帶方 2郡이 魏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東夷의 諸族들은 魏에 '굴복'하는 자세를 취했다. 246년에 魏가 幽州刺史인 毋丘儉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따르자면 이 때 고구려의 수도 丸都城은 함락되었고 왕은 南沃沮의 땅으로 도피하고 있다.

이 고구려의 대패배는 단순히 패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을 남쪽으로 촉진시켰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매장문물에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韓과 倭가 활발하게 樂浪·帶方 2郡으로 通貢하고 나아가 魏의 수도 洛陽에도 通交하게 된다.

이보다 이전인 239년에는 倭의 大夫인 難升米 등이 帶方郡에 도착했고, 또 洛陽에까지 배웅을 받고, 다음 해에는 倭國이 魏의 使者를 맞이하여 金印紫綬 등을 받았고, 243년에는 大夫인 伊聲耆, 掖邪狗 등 8명이 魏에 사자로 보내진다.

魏의 고구려 공격 다음 해인 247년에는 倭國王 卑弥呼가 倭의 狗奴國王과 서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帶方郡에 호소하는데, 이에 대해 魏는 參謀에 해당하는 塞曹掾史 張政을 보낸 정도이지만, 이러한 열도의 전쟁도 魏의 동방원정과 고구려의 패배와 반도지역의

동향에 대응하는, 열도지역의 권력집중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일 것이다.

이런 중앙과 동떨어진(僻遠) 倭國王이 魏의 帶方郡에 대해 通交하고 그리고 洛陽에도 가서 '金印紫綬' 등을 받은 배경에는 중국본토에서는 魏가 남쪽의 吳와 대립하고 있었고 지리적으로 그 吳를 견제할 수 있는 곳에 倭國이 있다는 인식에서 倭國을 높이 평가한 것도 있을 것이다【金子 1998】. 또 倭國이 帶方郡에 왕성하게 通交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樂浪·帶方 2郡이 魏에 접수된 것과 魏로부터 '邑君' '邑長'의 印綬를 받은 韓族사회의 씨족장인 '臣智'層이 이미 魏에게 臣從하고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倭國使를 帶方郡과 洛陽으로 안내하는 작용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魏가 晋왕조로 교체된 다음 해인 266년에 倭國使가 '重譯'하여 入貢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례이다.

이 韓과 倭가 왕성하게 帶方郡과 樂浪郡에 通交하는 관계는 265년에는 司馬炎이 魏를 대신하여 晋을 개국한 후에도 계속된다.

【AD 3세기 후반】

① ≪晋書≫ 卷3·武帝 '泰始二年(266)十一月己卯, 倭人來獻方物'
〔≪晋書≫ 卷97·東夷·倭人傳 '泰始初, 遣使重譯入貢'〕
〔'晋起居注云, 武帝泰初二年十月, 倭女王遣重譯貢獻'(≪日本書紀≫ 卷 9·神功皇后攝政66年)〕

② ≪晋書≫ 卷3·武帝 '咸寧二年(276)二月, 東夷八國歸化. 七月, 東夷十七國內附'·同 '咸寧三年(277), 是歲, 西北雜虜及鮮卑, 匈奴, 五溪蛮, 東夷三國, 前後千余輩, 各帥種人部落內附'

③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咸寧三年(277), (馬韓)復來'
·≪晋書≫ 卷3·武帝 '咸寧四年(278)三月, 東夷六國來獻. 是歲, 東夷九國內附'

④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咸寧四年(278), (馬韓)請內附'
·≪晋書≫ 卷3·武帝 '太康元年(280)六月甲申, 東夷十國歸化. 七月, 東夷二十國朝獻'〔280년, 晋이 吳를 멸망시킴〕

⑤ ≪晋書≫ 卷97·東夷·馬韓傳 '武帝大康元年(280)·二年(281), 其主頻遣使入貢方物. 七年(286), 八年, 十年(289), 又頻至'

⑥ 同東夷·辰韓傳 '武帝太康元年(280), 其王遣使獻方物'
·≪晋書≫ 卷3·武帝 '太康二年(281)三月, 東夷五國朝獻. 夏六月, 東夷五國內附'

⑦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康二年(281), 其主遣使入貢方物'

⑧ 同東夷·辰韓傳 '太康二年(281), (辰韓)復來朝貢'
≪晋書≫ 卷3·武帝 '太康三年(282)九月東夷二十九國歸化, 獻其方物'

⑨〔≪晋書≫ 卷36·張華傳'乃出張華爲持節都督幽州諸軍事領護烏桓校尉安北將軍, 撫納新旧, 戎夏懷之. 東夷馬韓新彌諸國, 依山帶海, 去州四千余里, 歷世未附者二十余國, 竝遣使朝獻, 於是遠夷賓服, 四境無虞頻歲豊稔, 士馬彊盛. 朝議欲徵華入相, 又欲進号儀同'〕

⑩ ≪晋書≫ 卷3·武帝 '太康七年(286)八月東夷十一國內附. 是歲, 馬韓等十一國遣使來獻'

⑪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康七年(286), (馬韓)至'

⑫ 同東夷·辰韓傳 '太康七年(286), (辰韓)又來'

·≪晋書≫ 卷3·武帝 '太康八年(287)八月東夷二國內附'
⑬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康八年(287), (馬韓)至'
·≪晋書≫ 卷3·武帝 '太康九年(288)九月東夷七國, 詣校尉內附'
·同'太康十年(289)五月鮮卑慕容廆來降, 東夷十一國內附. 是歲, 東夷絶遠三十余國, 西南夷二十余國來獻'
⑭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康十年(289), (馬韓)至'
·≪晋書≫ 卷3·武帝 '太熙元八年(290)二月辛丑, 東夷七國朝貢'
⑮ ≪晋書≫ 卷97·東夷·馬韓傳 '太熙元年(290), (馬韓)詣東夷校尉何龕上獻'
·≪晋書≫ 卷4·惠帝 '(元康元年)是歲(291)東夷十七國, 南夷二十四部, 竝詣校尉內附'

3세기 후반의 韓 諸國과 倭가 2郡과 洛陽에 通交하는 동향을 전하는 ≪晋書≫는, 646년에 唐의 房玄齡 등이 太宗황제의 칙을 받들어 편찬한 正史이다. 당해 시대부터 300년 정도 후에 편찬된 것이지만 逸書의 각종 ≪晋書≫를 바탕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東夷傳이 너무 간략하다고는 하지만 通交의 경향은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東夷'의 복수국들이 西晋에 通交했던 것은 '東夷六國來獻' 등으로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東夷馬韓新彌諸國'과 같이 ≪三國志≫ 韓傳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 마한의 '新彌國'이 보인다. 마한과 진한 내에서 소국이 왕성하게 通交했던 배경으로는 幽州都督인 張華가 東夷에 대하여 실시했던 慰撫策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에 반응하여 韓 내부의 각 소국들에서는 정치사회의 변화가 태동하고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倭國이 西晋에 通交했던 기사는 266년의 '重譯'에 의한 조공례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데 倭國이 西晋에 通交한 것이 이 한번뿐이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마한 諸國의 안내를 받아 入貢이 가능했던 것은 '重譯'이라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어서 '東夷'의 십여 국의 通交 중에는 倭國을 구성하는 지역 내의 한 세력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前代의 倭가 마한 '臣智'層의 안내를 받아 帶方郡에 通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두절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2. 한국문헌을 통해 본 일한교류

2~3세기 반도와 열도지역의 교류에 대해서 이를 문헌을 통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韓國史 중에서 현존하는 最古의 편찬역사서인 ≪三國史記≫가 그 대상이 된다. 이 사서에

도 2~3세기에 상당하는 시대의 열도지역의 정치사회체는 '倭' '倭人'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기록은 아래와 같다. 倭, 倭人이 신라와 관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신라와 다른 세력과의 관계와 연동되고 있다는 배경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기록도 아래에 같이 소개한다.

【AD 2세기】

① ≪三國史記≫ 卷1·新羅本紀 '(婆娑尼師今)二十六年(AD105년)春正月. 百濟遣使請和'
② 同 '婆娑尼師今二十七年(AD106년)秋八月. 命馬頭城主伐加耶'
③ 同 '婆娑尼師今二十九年(AD108년)夏五月. 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幷之'
④ 同 '祇摩尼師今四年(AD115년)春二月. 加耶寇南辺. 秋七月. 親征加耶. 帥步騎, 度黃山河. 加耶人伏兵林薄, 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囲數重. 王揮軍奮擊. 決囲而退'
⑤ 同 '祇摩尼師今五年(AD116년)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以継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乃還'
⑥ 同 '祇摩尼師今十年(AD121년)夏四月. 倭人侵東辺'
⑦ 同 '祇摩尼師今十一年(AD122년)夏四月. 大風東來, 折木飛瓦. 至夕而止. 都人訛言. 倭兵大來. 爭遁山谷. 王命伊飡翌宗等諭止之'
⑧ 同 '祇摩尼師今十二年(AD123년)春三月. 與倭國講和'
⑨ 同 '祇摩尼師今十四年(AD125년)春正月. 靺鞨大入北境. 殺掠吏民. 秋七月. 又襲大嶺柵. 過於泥河. 王移書百濟請救. 百濟遣五將軍助之. 賊聞而退'
⑩ 同 '逸聖尼師今四年(AD137년)春二月. 靺鞨入塞. 燒長嶺五柵'
⑪ 同 '逸聖尼師今六年(AD139年)八月. 靺鞨襲長嶺. 虜掠民口. 冬十月. 又來. 雷甚. 乃退'
⑫ 同 '逸聖尼師今七年(AD140년)春二月. 立柵長嶺. 以防靺鞨'
⑬ 同 '逸聖尼師今九年(AD142년)秋七月. 召羣公議征靺鞨. 伊飡雄宣上言不可. 乃止'
⑭ 同 '逸聖尼師今十三年(AD146년)冬十月. 押督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地'
⑮ ≪三國史記≫ 卷2·新羅本紀 '(阿達羅尼師今)五年(AD158년)春三月. 倭人來聘'
⑯ 同 '阿達羅尼師今十二年(AD165년)冬十月. 阿飡吉宣謀叛, 發覺. 懼誅亡入百濟. 王移書求之. 百濟不許. 王怒出師伐之. 百濟嬰城守不出. 我軍糧盡乃歸'
⑰ 同 '阿達羅尼師今十四年(AD167년)秋七月. 百濟襲破國西二城. 虜獲民口一千而去. 八月.命一吉飡興宣. 領兵二萬伐之. 王又率騎八千. 自漢水臨之. 百濟大懼. 還其所掠男女乞和'
⑱ 同 '阿達羅尼師今十七年(AD170년)冬十月. 百濟寇辺'
⑲ 同 '阿達羅尼師今二十年(AD173년)夏五月. 倭女王卑彌呼遣使來聘'
⑳ 同 '伐休尼師今五年(AD188년)春二月. 百濟來攻母山城. 命波珍飡仇道. 出兵拒之'
㉑ 同 '伐休尼師今六年(AD189년)秋七月. 仇道與百濟戰於狗壤. 勝之. 殺獲五百餘級'
㉒ 同 '伐休尼師今七年(AD190년)秋八月. 百濟襲西境圓山鄉. 又進囲缶谷城. 仇道率勁騎五百擊之. 百濟兵佯走. 仇道追及蛙山. 爲百濟所敗. 王以仇道失策. 貶爲缶谷城主. 以薛支爲左軍主'
㉓ 同 '伐休尼師今十年(AD193년)六月. 倭人大饑. 來求食者千餘人'
㉔ 同 '奈解尼師今四年(AD199년)秋七月. 百濟侵境'

【AD 3세기】

① ≪三國史記≫ 卷2·新羅本紀 '(奈解尼師今)十三年(AD208년)夏四月. 倭人犯境. 遣伊伐飡利音. 將兵拒之'
② 同「助賁尼師今三年(232)夏四月. 倭人猝至囲金城. 王親出戰. 賊潰走. 遣輕騎追擊之. 殺獲一千餘級.
③ 同 '助賁尼師今四年(233)五月. 倭兵倭東辺. 秋七月. 伊飡于老與倭人戰沙道, 乘風縱火焚舟, 賊赴水死盡'
④ 同 '沾解尼師今三年(249)夏四月. 倭人殺舒弗邯于老'
⑤ 同 '儒禮尼師今四年(287)夏四月. 倭人襲一禮部, 縱火燒之, 虜人一千而去'
⑥ 同 '儒禮尼師今六年(289)夏五月. 聞倭兵至, 理舟楫繕甲兵'
⑦ 同 '儒禮尼師今九年(292)夏六月. 倭兵攻陷沙道城, 命一吉飡大谷領兵救, 完之'
⑧ 同「儒禮尼師今十一年 (294) 夏. 倭兵來攻長峯城, 不克」
⑨ 同 '儒禮尼師今十二年(295)春. 王謂臣下曰, 倭人屢犯我城邑, 百姓不得安居, 吾欲與百濟謀, 一時浮海, 入擊其國, 如何. 舒弗邯弘權對曰, 吾人不習水戰, 冒險遠征, 恐有不測之危, 況百濟多詐, 常有呑噬我國之心, 亦恐難與同謀, 王曰, 善'
⑩ 同 '基臨尼師今三年(300)春正月. 與倭國交聘'

2세기에 비하여 3세기에는 倭와 관련된 기사가 늘어난다. '倭女王 卑彌呼'가 신라에게 '遣使하여 來聘'했다며 '阿達羅尼師今二十年(AD173년)夏五月'로 ≪三國史記≫에서는 편년한 것은 ≪三國志≫ 魏志·倭人傳의 기사를 반세기 정도 거슬러 올라가 편년에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新羅本紀>의 倭, 倭人기사에는 ≪三國志≫ 편찬의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라는 이미 진한 12국을 통합하여 신라국으로 성장하고, 또 '倭'國과는 '聘'交하는 대등한 외교를 추진했다고 편찬한 그 배경에는 '倭女王 卑彌呼'가 신라에 '遣使하여 來聘'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 배경에는 '倭女王 卑彌呼'가 魏황제로부터 '親魏倭王'으로 책봉되어 있었는데 신라는 아직 신라국으로서는 성립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倭女王 卑彌呼'와의 '聘'交관계를 2세기 중반에 맺었다고 가정함으로써 신라국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승인받았다고 하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3세기의 倭, 倭人이 신라를 침입했다고 하는 일련의 <新羅本紀>의 기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일찍이 津田左右吉씨는 <新羅本紀>의 倭 관계기사는 "사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津田 1966】라고 무시했지만, 최근 30년간은 오히려 이러한 기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이다.

旗田巍氏씨는 倭가 신라에 침입하는 계절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왜를 4, 5, 6월에 집중적으로 신라의 사람과 물건을 약탈하는 '계절적 해적집단'이라고 봤다【旗田 1973】. 즉 야마토정권 등 열도의 왕권이 발동한 침입이라고는 이해하고 있지 않다.

<新羅本紀>에서 보이는 倭의 신라침입기사는 침입을 당한 측의 기록이어서 침입을 발동하는 주체와 그 소재지 등의 기록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新羅本紀>의 倭 관계기사만을 봐서는 신라에 침입하는 倭의 세력범위에 대해 기사의 경향을 바탕으로 해적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정당하지는 않다. 또 그 발원지를 加羅에 있다든가【井上 1978】, 또 북부 九州라든가 아니면 백제계와 신라계 倭國이라고 해석하는 설【金 1969】도 隣接史料와 고고학적 견지와의 정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田中 1982년】.

【참고문헌】

·池田溫, 1998 <東洋學からみた『魏志』倭人傳>, 平野邦雄編 ≪古代を考える邪馬台國≫, 吉川弘文館, 池田溫, 2002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井上秀雄, 1978 <『日本書紀』の新羅傳說記事>, 井上秀雄≪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寧樂社
·井上秀雄, 1991 <中國史書にみえる倭><朝鮮史書にみえる倭>, 井上秀雄≪倭·倭人·倭國－東アジア古代史再檢討－≫, 人文書院
·金子修一, 1998 <二·三世紀の東アジア世界>, 平野邦雄編 ≪古代を考える邪馬台國≫, 吉川弘文館
·金錫亨, 1969 ≪古代朝日關係史一大和政權と任那一≫ 後編 第5章 第1節 <朝鮮史料からみち五世紀までの朝日關係>, 勁草書房
·高寬敏, 1996 ≪『三國史記』の原典的硏究≫ <第二章新羅本紀の國內原典>, 雄山閣出版)
·鈴木英夫, 1996 <『三國史記』の倭關係記事>, 同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靑木書店, 첫 출간은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4号, 1985年
·西嶋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第3章 親魏倭王册封に至る東アジアの情勢－公孫氏政權の興亡を中心として－>, 東大出版會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 <序章·倭國の形成とその國際的契機 / 第一章·一～三世紀の東アジアと倭國 / 第二章·四～六世紀の東アジアと倭國>, 東大出版會
·武田幸男, 1990 <魏志東夷傳における馬韓> ≪馬韓·百濟文化≫ 第12号, 韓國·圓光大學校
·李賢惠, 1994 <三韓稅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일본어 번역은 金井塚良一譯,<三韓の對外交易体系> ≪東洋硏究≫ 第119号
·武田幸男, 1995～1996 <三韓社會における辰王と臣智> (上·下) ≪朝鮮文化硏究≫ 第2,3号
·田中俊明, 1982 <『三國史記』にみえる「倭」關係記事について> ≪歷史公論≫ 第8卷 第4号. 雄山閣
·津田左右吉, 1966 <三國史記の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新硏究≫, 津田左右吉全集別卷第一, 岩波書店
·旗田巍, 1973 <『三國史記』新羅本紀の「倭」>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9号
·李成市, 1998 <第一編樂浪郡設置と高句麗の國家形成>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木村誠, 1998 <倭人の登場と東アジア>, 平野邦雄編 ≪古代を考える邪馬台國≫, 吉川弘文館
·西嶋定生, 1999 ≪倭國の出現－東アジア世界のなかの日本－≫, 東大出版會
·大庭脩, 2001 ≪親魏倭王≫, 學生社, 增補初版

·堀敏一, 2006 <漢代の異民族支配における郡縣と册封>, 同 ≪東アジア世界の形成一中國と周辺國家一≫, 汲古書院
·堀敏一, 2006 <異民族支配からみた三國時代の位置>, 同 ≪東アジア世界の形成一中國と周辺國家一≫, 汲古書院